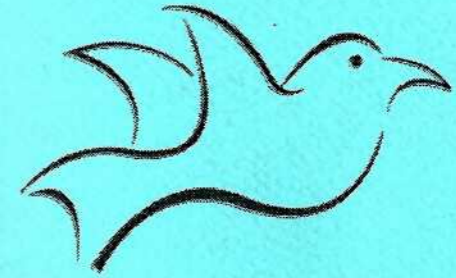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SAe1.8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활동 백서

The white paper of activity
Iraq Peace Team of Korea



Solidarity for
Peace Making & Sharing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
Solidarity for Iraq Peace Team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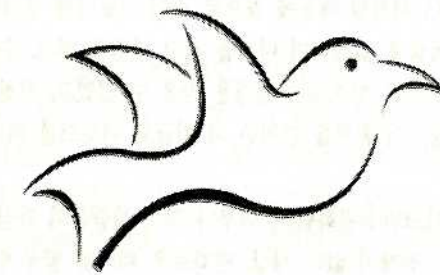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활동 백서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인권정보자료실
SAe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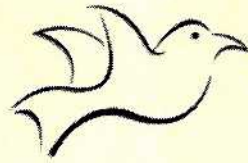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활동 백서

The white paper of activity
Iraq Peace Team of Korea



**Solidarity for
Peace Making & Sharing**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
Solidarity for Iraq Peace Team of Korea



이라크반전평화팀의 백서를 발간하며

이라크 전쟁을 막기 위해, 그리고 이라크에 평화를 염원하며 작은 힘을 보태고자 수천 킬로 이라크로 날아가 현지에서 활동한 것도 6개월을 넘기며 여기에 있습니다. 2003년은 온통 이라크로만 기억될 지 모르겠습니다. 꽃이 피고 한들한들 봄기운이 이 땅을 뒤덮고 있을 때도 사방이 막힌 골방이라도 처박힌 듯했던 지난 봄, 날이 날카롭게 선 채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순간의 감정들과 시간들은 지금도 가끔 짓누르곤 합니다.

매번 목숨을 전제하고 이야기했던 처절함 때문에 참으로 많이 서로에게 상처를 내었으며, 아래로 아래로 무너져가곤 했던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걸겠다고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불면증으로 시달리며 달려 왔건만 우리의 작은 힘으로는 전쟁을 막을 수 없었고, 처참하게 찢겨진 마음으로 전쟁을 바라보고, 각자의 가슴에 상처의 흔적을 간직한 채 지금도 이라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의 뜻이 모여 시작된 이라크반전평화팀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성원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며 내딛었던 수많은 걸음들이 없었다면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그래서 다시는 전쟁을 이 세상에서 허용하지 않기 위해, 6개월간의 활동이 훗날의 실천에 아주 조그마한 밑거름이라도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라크반전평화팀의 활동을 백서를 묶어봅니다. 처음부터 이라크반전평화팀은 몇 사람의 것이 아니었기에, 손맞잡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아득히 먼 일로 여겨지는 그때를 되돌릴 수는 없어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서성이지 말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더 흘려야지만 평화를 만들 수 있는지 되묻고자 합니다. 거리거리를 누비며 전쟁 반대, 평화 실현을 외쳤던 수많은 함성들을 되살리는 작은 디딤돌 하나가 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없이 부끄럽지만, 미숙했던 지난 날의 실천을 내어보입니다.

1부는 이라크반전평화팀의 활동 기록을 정리하고 묶어 보았습니다. 반전활동에서 지원활동까지, 작은 역량들이었지만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의지와 노력을 담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이라크반전평화팀의 마지막 노력까지는 담지 못했습니다. 이라크반전평화팀의 최종적인 보고는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뒤 각 팀원들이 내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보고 겪은, 그리고 전후 이라크 미점령 상황까지, 그래서 다시 이라크 민중이 자신의 사회를 일으켜내는 모습까지 지켜볼 것을 약속합니다.

2부는 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의 활동 기록을 정리하고 묶어 보았습니다. 이라크반전평화팀과 함께 했던 활동을 담았습니다. 분쟁지역에서의 반전활동, 평화활동 등을 지원했던 활동의 기록입니다. 반전평화팀의 의지와 함께하기 위해 국내에서의 반전평화활동까지 온 힘을 다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때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 직장까지 잃어야만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했던 지원활동이었고 앞으로 더 나은 반전평화운동에 대한 지원방법을 반성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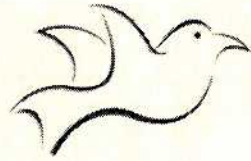
3부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에 반전평화팀과 함께했던 국내에서의 활동을 모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역량의 한계로 그 많은 활동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것들을 다 모은다면, 참으로 훌륭한 반전평화활동의 지침서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라크반전평화팀은 한국 양심들의 모두의 것이기에 함께 걸음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같이 담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지 못한 점 너그러운 양해를 바라며, 가능했던 선에서 정리한 것을 담아봅니다.

4부는 이라크반전평화팀의 언론보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이라크 전쟁에 관한 좋은 글들을 묶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너무나 방대한 자료들과 싸움만 했을 뿐, 제대로 정리조차 못하고 내놓습니다. 올바른 언론을 펼치기 위해 뛰어다녔던 많은 언론인들의 노고에 지나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여 많은 부분이 빠져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백서랍시고 이렇게 내어놓지만, 많은 것이 빠져있습니다. 게으름과 무능력을 탓해 봅니다. 이 백서가 조금이나마 이라크 전쟁을 기억하는데, 그래서 다시 어떤 실천을 시작하는데 작은 보탬이 된다면, 제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3년 8월 19일

이라크반전평화팀과 지원연대, 그리고 백서발간팀을 대신하여
염창근 드림



백서의 구성

2 백서를 발간하며

4 백서의 구성

7 1부 이라크반전평화팀 활동 기록

10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활동의 과정

33 계획서, 보고서, 기자회견문, 성명서

이라크 평화팀 활동 기획안

Call for Iraq Peace Team

2월 7일 이라크반전평화팀 출국 기자회견문과 참가자 결의서

2월 23일 1차 임시회의 결과 보고서 (오김숙이)

2월 24일 2차 임시회의 결과 보고서와 지원연대 요청 및 전달사항 (오김숙이)

2월 26일 전체회의 보고서 (오김숙이)

2월 26일 이라크 한국반전평화팀의 캠페인 및 봉사활동 계획서 (박기범)

2월 27일 이라크 입국 기자회견문

3월 6일 전체회의 결과 보고서 (오김숙이)

3월 7일, 8일 활동상황 보고서 (오김숙이)

3월 8일 전체회의 결과 보고서 (오김숙이)

3월 9일 활동 진행상황 보고서 (오김숙이)

3월 11일 은국, 허혜경 귀국 기자회견문

3월 13일 현재 활동상황 보고서 (오김숙이)

3월 14일 활동 보고서 (오김숙이)

3월 15, 16일 활동 보고서 (오김숙이)

3월 19일 현재 활동상황 보고서 (오김숙이)

3월 20일 전쟁에 항의하는 이라크반전평화팀 성명서

3월 21일 상황 보고서 (오김숙이)

3월 22일 한국정부 파병결정 규탄 민주노총 대표단과 이라크반전평화팀 공동 성명서

3월 22일 보고서 (오김숙이)

3월 23일 한국 외교부 규탄 성명서

3월 24일 2차 귀국 기자회견문

3월 25일 보고서 (임영신)

3월 30일 배상현 팀원의 현지 증언 및 이라크반전평화팀 재입국 추진 선언 기자회견문

3월 30일 전쟁범죄 관련 IPT 보고서

4월 3일 배상현, 임영신 귀환 기자회견문

4월 3일 배상현 입장글과 성명서

4월 3일 국적 포기과 관련한 배상현, 임영신의 입장

4월 3일 노무현대통령께 보내는 항의서한

이라크반전평화팀 이후 계획에 관하여 (4월 6일, 최혁)

농성 결의문 (4월 8일, 오김숙이, 은국, 허혜경, 임영신)

바그다드 리포트 1 (4월 12-14일, 임영신)

"Al Hanan 중증장애인의 집"에 대한 리포트 (4월 20일, 유은하)

바그다드 리포트 2 (4월 20일, 임영신)

바그다드 리포트 3 (4월 24일, 임영신)

한국에 계신 후원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4월 28일, 유은하)

현지 이라크반전평화팀 계획서 - 이라크 민중지원 사업 제안 (4월 30일, 최혁)

현지 보고서 -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5월 5일, 오수연)

알 누르 시각장애인 학교에 대한 보고(5월 15일, 유은하)

성명 - 미국의 이라크 점령 및 식민화 정책에 반대합니다 (유은하)

알 하난 정리에 관한 보고 (6월 16일, 김하운)

현지 활동 보고 (6월 18일)

이라크 전후 한국단체 이라크 구호활동 백서 발간 위한 설문지 (6월 20일)

전후 미점령 실태 조사 보고 (8월 16일, 김하운)

155 2부 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 활동 기록

158 지원연대 활동의 과정

173 지원연대 회의의 과정과 결과

233 후원금 및 성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

이라크반전평화팀 후원금 수입과 지출 내역

이라크 민중지원 성금 수입과 지출 내역

249 성명서 및 자료들

이라크 평화팀 등록에 필요한 사항

IPT 등록시 본부에서 발송하는 메일

출국 기자회견 지원연대 성명서 (27)

계 단체 이라크반전평화팀 지지 성명 요청 공문 (211)

서명운동 - 부시와 블레어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2. 12)

후원 요청 공문 (2.12)

지원연대 위상과 활동(보완) (2. 21)

이라크반전평화팀 공식 입장 요청문 (2. 23)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과 함께하는 지원을 위한 요청 (2. 27)

조선일보 기사 정정보도 요청 공문 (3.4)

- 4당 공동성명서 (3.13)
- 노무현대통령의 부시 지지에 대한 항의 성명 (3.14)
- 서명운동 - 한국군을 파병해서는 안되는 다섯가지 이유 (3.14)
- 무기한 1인 시위 선언문 (3.19)
- 이라크 침공 규탄 지원연대 성명서 (3.20)
- 마로니에 촛불시위 제안문 (3.27)
- 이라크 재입국 관련 요청사항 (3.31)
- 명동성당 천막농성 성명서 (4.8)
- 성명 - 반전평화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4.11)
- 한국군 파병에 관한 농성단 성명 (4.17)
- 이라크 평화와 이라크 민중 지원을 위한 연대를 제안합니다 (5.6)
- 평화와 나눔의 마음으로 이라크 민중지원을 시작합니다 (5.28)
- ID 카드
- 공식정리 공지문(8.1)

287 3부 이라크 전쟁 국내 반전평화활동의 기록

288 지원연대와 함께한 단체들의 활동 기록

334 이라크 전쟁 반대 국내 반전평화 활동 기록

343 4부 이라크반전평화팀 언론보도 정리

346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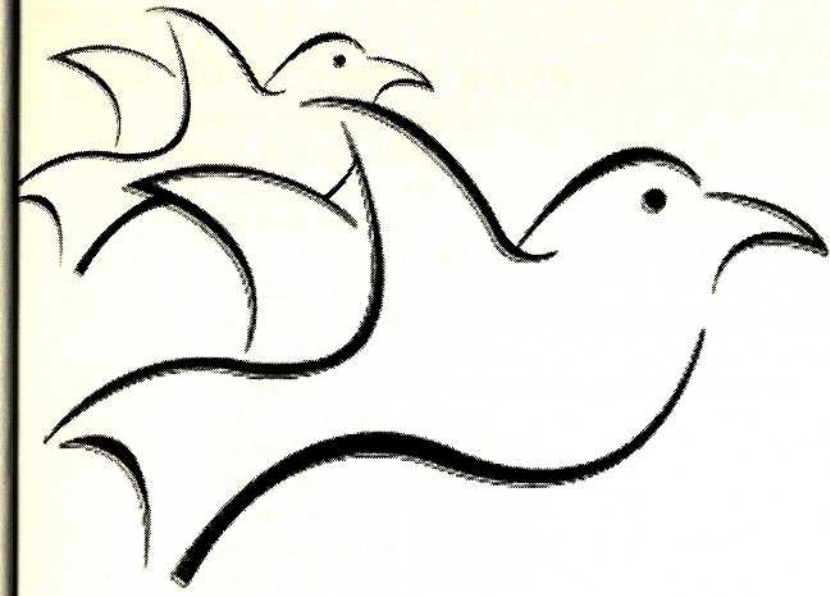
356 일간지

384 주간지

395 인터넷 매체

398 시민사회단체 소식지

401 [광고] 이라크에서 온 편지



1부 이라크반전평화팀 활동 기록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활동의 과정
보고서, 기자회견문, 성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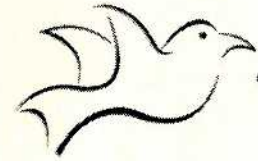
2월 7일 이라크반전평화팀 출국 기자회견

1부 이라크반전평화팀 활동 기록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활동의 과정

보고서, 기자회견문, 성명서

- 이라크 평화팀 활동 계획안
- Call for Iraq Peace Team
- 2월 7일 이라크반전평화팀 출국 기자회견문과 참가자 결의서
- 2월 23일 1차 임시회의 결과 보고서 (오김숙이)
- 2월 24일 2차 임시회의 결과 보고서와 지원연대 요청 및 전달사항 (오김숙이)
- 2월 26일 전체회의 보고서 (오김숙이)
- 2월 26일 이라크 한국반전평화팀의 캠페인 및 봉사활동 계획서 (박기범)
- 2월 27일 이라크 입국 기자회견문
- 3월 6일 전체회의 결과 보고서 (오김숙이)
- 3월 7일, 8일 활동상황 보고서 (오김숙이)
- 3월 8일 전체회의 결과 보고서 (오김숙이)
- 3월 9일 활동 진행상황 보고서 (오김숙이)
- 3월 11일 은국, 허혜경 귀국 기자회견문
- 3월 13일 현재 활동상황 보고서 (오김숙이)
- 3월 14일 활동 보고서 (오김숙이)
- 3월 15, 16일 활동 보고서 (오김숙이)
- 3월 19일 현재 활동상황 보고서 (오김숙이)
- 3월 20일 전쟁에 항의하는 이라크반전평화팀 성명서
- 3월 21일 상황 보고서 (오김숙이)
- 3월 22일 한국정부 파병결정 규탄 민주노총 대표단과 이라크반전평화팀 공동 성명서
- 3월 22일 보고서 (오김숙이)
- 3월 23일 한국 외교부 규탄 성명서
- 3월 24일 2차 귀국 기자회견문
- 3월 25일 보고서 (임영신)
- 3월 30일 배상현 팀원의 현지 증언 및 이라크반전평화팀 재입국 추진 선언 기자회견문
- 3월 30일 전쟁범죄 관련 IPT 보고서
- 4월 3일 배상현, 임영신 귀환 기자회견문
- 4월 3일 배상현 입장글과 성명서
- 4월 3일 국적 포기과 관련한 배상현, 임영신의 입장
- 4월 3일 노무현대통령께 보내는 항의서한
- 이라크반전평화팀 이후 계획에 관하여 (4월 6일, 최혁)
- 농성 결의문 (4월 8일, 오김숙이, 은국, 허혜경, 임영신)
- 바그다드 리포트 1 (4월 12-14일, 임영신)
- "Al Hanan 중증장애인의 집"에 대한 리포트 (4월 20일, 유은하)
- 바그다드 리포트 2 (4월 20일, 임영신)
- 바그다드 리포트 3 (4월 24일, 임영신)
- 한국에 계신 후원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4월 28일, 유은하)
- 현지 이라크반전평화팀 계획서 - 이라크 민중지원 사업 제안 (4월 30일, 최혁)
- 현지 보고서 -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5월 5일, 오수연)
- 알 누르 시각장애인 학교에 대한 보고(5월 15일, 유은하)
- 성명 - 미국의 이라크 점령 및 식민화 정책에 반대합니다 (유은하)
- 알 한난 정리에 관한 보고 (6월 16일, 김하운)
- 현지 활동 보고 (6월 18일)
- 이라크 전후 한국단체 이라크 구호활동 백서 발간 위한 설문지 (6월 20일)
- 전후 미점령 실태 조사 보고 (8월 16일, 김하운)



이라크 반전평화팀 활동의 과정

2002년

12월 말

- 한국의 평화운동가들이 모여 한반도의 전쟁 위기와 이라크 문제의 연관성에 관해 논의하던 중 이라크 전쟁을 막는데 먼저 힘을 보태자는데 동의, 1월 초 지원자를 모집하면서 실물화하였다.

2003년

1월 초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자들이 동참할 것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1월 중순

- 미국의 Voice in the Wilderness(광야의 목소리)라는 평화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라크평화팀(Iraq Peace Team)의 일원으로 합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월 말 1진 출국을 목표로 실물적 준비에 들어갔다. 각 단체와 개인들이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정당, 사회단체, 평화단체, 종교단체, 언론단체, 의료단체 등과 접촉하였다.

1월 말

- 참가자들과 재정 등 실물적 준비가 부족한 관계로 1진 출국을 2월 초로 연기하였다.

2월 4일 화

-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참가자 전원과 지원을 고려하는 단체들이 시민의신문사에 모여 이후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다.

2월 5일 수

- 사회당 중앙당사에서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 결성에 참여하여 함께 이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2월 7일 금

-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출국기자회견을 1시 30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하였다.
-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1진이 루프트한자 독일항공편으로 15시 10분에 출국하였다.
- 1진 참가자 : 한상진(평화운동가, 비폭력평화연대), 남효주(청소년), 이영화(NGO)

2월 10일 월

- 이라크반전평화팀 홈페이지를 개통하였다. <http://iraqpeace.ngotimes.net>

2월 16일 일

-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2진(1차)이 루프트한자 독일항공편으로 15시 10분에 출국하였다.
- 2진(1차) 가자 : 성혜란(대학생신문 객원기자), 은국(경희대 한의대 학생, 예비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회당원), 전승로(경희대 관광대 대학생), 허혜경(사회당원)

2월 18일 화

- 남효주, 이영화가 건강 악화로 귀국하였다.

2월 19일 수

-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2진(2차) 루프트한자 독일항공편으로 15시 10분에 출국하였다.
- 2진(2차) 참가자 : 김력균(경인방송PD, 현 경인방송 노조 사무국장), 오김숙이(여성운동가, 여성해방연대)
- 한상진, 허혜경이 답사차 이라크에 입국하였다. IPT 및 반전활동가들과의 간담회, 반전연대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 요르단에 남은 팀원들은 난민구호캠프 설치 준비를 논의하였다.

2월 22일 토

-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3진이 KLM 네덜란드항공편으로 13시 35분에 출국하였다.
- 3진 참가자 : 박기범(동화작가), 이운벽(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 임종진(한겨레 사진기자), 최혁(정당인, 사회당)

2월 23일 일

- 반전평화팀 체계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하였다.
- 임시체계 : 임시대표에 오김숙이, 재정담당에 은국이 결정되었다.
- 활동계획 : 반전캠페인, 현지봉사활동, 외국단체와의 연대, 국내와의 연계, 개전시 난민구호활동

2월 24일 월

- 반전평화팀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하였다. 활동계획을 논의하였고 준비를 위한 임시 역할분담을 정하였다.
- 뉴스브리핑 / 대사관, 한인회 연계와 지원 채널 확보 / 난민캠프 참가방안 모색 / 집회 및 현지 봉사활동 기획 / 국내 단체와의 연계 / 팀 활동 기획서 초안 작성 등

2월 25일 화

- 이라크에 입국했던 한상진, 허혜경 일주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요르단으로 나왔다.

2월 26일 수

-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체계를 다시 정비하였다. 공동대표 오김숙이, 한상진
- 회의를 통해 반전평화팀 전원이 이라크에 입국하기로 하였다.
- 요르단에 눈이 왔다.

2월 27일 목

-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이라크 입국 기자회견을 현지시각 오후 6시에 진행하였다.
-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10명이 이라크에 입국하였다. 한상진 공동대표만 IPT 비자를 받기 위해 요르단에 남았다.

2월 28일 금

- 이라크 바그다드에 도착하였다. 쇼루주 시장에서 이라크 사람들을 만났다. 올드 바그다드라는 서민 마을을 둘러보았다. 아이들과 어울려 골목을 다니고, 자연스럽게 모여든 아이들과 함께 'peace'를 이야기하며 행진하였다. 밤에는 휴먼월드 숙소에서 다음날 일정 공유하였다.

3월 1일 토

□ 아침에 아랍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다. 집회에 참가하여 타흐리 광장까지 시내 거리 행진을 하였다.

▶ 활동 일지

10:00 아침 식사

11:00 관광 일정을 위해 호텔로비에 모임.

(원래 계획은 팀원 가운데 3명이 오후 집회 참여 준비를 위해 준비 물품 구입을 위해 바깥에 나가고, 나머지 팀원들이 짜여진 관광 일정대로 움직이다 돌아오는 것이었으나, 이것이 정부 요원들과 가이드들에게 문제가 됨. 물품 구입을 위해 나간 팀원들이 돌아올 때까지 호텔 로비에서 대기.)

12:30 호텔 로비에서 만난 아랍 신문기자가 우리 팀을 취재.

13:35 점심 식사 / 팀원 가운데 3명이 호텔에 남아 피켓을 만들.

15:05 호텔에 둘러 나머지 팀원들과 합류하여 집회 장소로 출발. 집회는 휴먼실드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부터 타흐리 광장까지 시내 거리 행진.

18:30 평화 행진을 마치고 호텔에 도착. 저녁 식사

19:30 팀원을 나누어 몇은 이라크 한국 대사관으로 가고, 몇은 휴먼 실드 및 IPT 관계자들을 만나 일정 체크, 몇은 정부 요원들과 저녁 식사, 몇은 개인 작업.

21:00 정리, 현지의 오랜 통신원 생활을 한 강경남 기자의 자문과 급박한 현지 정황을 바탕으로 하여 팀의 향후 진로 및 개인 고민을 나누는 대화.

* 바그다드에서 만소우 호텔에 묵다가 '자핫 알카리즈'라는 곳으로 숙소 옮김.

3월 2일 일

□ IPT 대표인 캐쉬 캘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 활동 일지

10:00 아침 식사

10:50 아침 식사 뒤 숙소를 옮기기 위해 짐을 챙겨 호텔 로비에 모임.

11:10 만소우 호텔에서 나와 자하라 알 카리주 호텔에 도착, 짐을 풀고 바로 관광청의 짜여진 관광 일정을 위해 모임.

11:30 정부 요원과 가이드가 따로 이야기를 나눈 뒤 정부 요원들이 몸이 좋지 않아 오늘 관광 일정을 취소. 우리 팀으로서는 좋은 일이었으나 그렇다고 자유시간을 얻어 따로 활동할 수는 없었음.

12:40 점심 식사 (식사 또한 정부 요원과 가이드의 안내 속에서 해야 했는데 숙소에서 식당으로 움직이는 시간이나 식당에서 식사를 기다리는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림. 식사시간으로 하루 일정 가운데 많은 시간을 빼앗김.)

15:30 IPT 회장인 캐쉬 캘리와 간담회. (우리가 머무는 숙소로 캐쉬 캘리를 불러와 IPT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현재 이라크에서의 계획 및 평화 운동가로 살아온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

18:00 정리 회의 전까지 나름대로 저녁 끼니를 때우며 개인 작업.

21:00 정리 회의 및 앞으로 일정 공유.

3월 3일 월

□ 알 라미라 박물관 방문, 연극공연 관람하였다.

□ IPT 관계자와 장애어린이 시설(미셔너리 오브 채리티)를 방문하였다.

▶ 활동 일지

10:00 아침 식사

11:00 관광 일정을 위해 호텔 로비에 모임.

11:40 실제 공습지였던 박물관에 도착하여 당시 전쟁의 아픔과 이라크인의 한을 담은 연극을 봄 (알 라미라 박물관)

12:30 박물관 내 유품 전시관으로 둘러 공습 당시 죽은 사람들의 얼굴과 그들이 남긴 유품들을 봄.

13:00 박물관에서 나와 다음 관광지인 구리 공예 시장으로 감.

14:40 점심 식사.

16:50 팀원 가운데 몇이 장애 어린이 시설에 방문하기 위해 IPT 사무실에 들름. (관계자가 자리에 없어 만나지 못함.)

17:25 IPT 관계자와 연락이 되어 장애 어린이 시설 방문. (미셔너리 오브 채리티)

19:00 저녁 식사

23:00 정리 회의

▶ 성혜란씨 일지 중 박물관 관람기

"알 아미라 박물관을 갔다. 그 어떤 '관광'도 이런 경험을 준 적이 없었던 듯 하다. 그냥 평범한 '추모 공간' 정도로 예상했던 박물관은 1991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 처참한 피폭의 흔적에서 연극을 공연하던 사람들의 눈빛, 그 연극을 관람하던 사람들의 눈물, 울음을 잊을 수가 없었다. 슬픈 연극, 영화를 보며 울던 사람들이라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같은 고통을 겪어 본 사람들의 통곡이었다.

그곳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아이들, 여자들, 사진으로 보았던 벗겨지고 불탄 시체들. 카메라를 들이대면서도 콧잔등이 시큰했다."

3월 4일 화

□ 고아원을 방문하였다.

□ 타흐리 광장에서 바그다드 시민들과 함께 걸개 그림 만들기과 얼굴 그림 그려주기(페이스 페인팅)를 하였다. 타흐리 광장 아래 잔디밭에서 바그다드 어린이와 함께 꼬마 운동회를 가졌다. 타흐리 광장 건너편 네거리에 걸개를 걸었다.

□ 어제 방문한 장애어린이 시설을 방문하였다.

▶ 활동일지

09:00 아침 식사

10:00 고아원 방문 / 행사 기획팀은 숙소에 남아 오후 광장 행사를 준비

13:00 점심 식사

14:30 타흐리 광장으로 출발

15:00 타흐리 광장에서 바그다드 시민들과 함께 걸개 그림 만들기과 얼굴 그림 그려주기 (페이스 페인팅)

16:00 타흐리 광장 아래 잔디밭에서 바그다드 어린이와 함께 꼬마 운동회

16:40 타흐리 광장 건너편 네거리에 걸개를 걸고, 몇 사람은 어제 방문한 장애 어린이 시설 (미셔너리 오브 채리티) 방문

18:00 숙소로 돌아와 저녁 식사 준비

19:00 저녁 식사

20:30 정리 회의

▶ 박기범씨 일지 중 타흐리 광장에서 진행한 행사

"그림이 되어갈수록 사람들 관심이 커졌고, 우리는 붓을 현지인들에게 건네었다. 구경하던 이라크 시민이 붓을 건네 받아 굵게 쓴 'PEACE' 글자에 색을 입혔다. 어른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 구경을 하던 아이도 붓을 건네 받아 그림에 페인트칠을 했다. 걸개 그림 그리기를 다 마쳤을 때 우리 팀원들은 모두 나란히 그 앞에 늘어서 한 사람씩 매직으로 자기가 하고픈 말을 써넣었다. 'Don't attack on iraq', '사랑해요', 'Yo!! peace', 'I love iraqi children', 'NO WAR', 'We are friend'..... 아무렇게나 걸개 바탕에 글씨를 써서 어지럽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우리의 마음 하나 하나가 더해지는 것 같았다. 팀원들이 모두 한 마디씩 쓰고 난 뒤, 이라크 시민들에게 매직을 건넸다. 콧수염에 양복을 입은 아저씨가 아랍 글자로 무어라 썼고, 허름한 잠바를 입은 청년이 그것을 건네 받아 또 한 마디를 썼다. 매직은 아이에게도 돌아갔고, 광장을 지키는 군인에게도 돌아갔다. 그리고 우리 팀의 여행 가이드를 해 주고 있는 (그와 우리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이기도 했다.) 카심

씨가 매직을 건네 받았고, 늘 우리 곁에서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던 정부 요원도 구두를 벗고 올라와 한 마디를 썼다. 그야말로 우리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과 이라크의 민중이 함께 만든 걸개가 되었다. 그 광장에 있던 어른, 아이, 군인, 정부 요원 할 것 없이 누구나 이 땅에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바란다는 마음을 그 걸개에 담았다.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걸개 작업을 다 한 뒤 광장 뒤편 잔디밭으로 자리를 옮기려 아직 마르지 않은 걸개를 옮기는데 그것은 하나의 아름다운 행렬이 되었다. 평화 팀원들과 아이들이 걸개 끝자락을 잡아 나르는 것만도 하나의 행렬이었는데 우리 둘레를 감싸며 따라오는 시민들, 그리고 마치 우리를 호위라도 하듯 곁에서 따라오는 군인들까지."

3월 5일 수

- 정재원(러시아 유학생) 요르단 암만에서 이라크반전평화팀에 합류(현재 12명)하였다.
- 한상진 공동대표, 정재원 이라크 입국(정재원 휴먼셴드로 합류)하였다.
- 휴먼셴드가 배치되어 있는 싸이트 방문하였다. 바그다드 외곽 타지에 지역에 있는 식량 창고(타지에 푸드 실로)에 도착, 그곳에 머물 예정인 정재원을 만난 뒤 그곳을 둘러보았다.
- 저녁에 암만으로 가기 위해 이라크에서 출국하였다. 한상진과 정재원은 이라크에 남았다.

▶ 활동 일자

- 09:00 아침 식사
- 10:00 짐 꾸리기
- 11:00 짐을 꾸려 숙소에서 나와 휴먼셴드가 배치되어 있는 싸이트 방문.
- 12:20 바그다드 외곽 타지에 지역에 있는 식량 창고 (타지에 푸드 실로)에 도착, 그곳에 머물 예정인 한국인 유학생을 만난 뒤 그곳을 둘러봄
- 13:30 바그다드 시내로 돌아와 점심 식사
- 14:30 점심 식사 뒤 암만 행 자동차를 타기 위한 정류장으로 옮김
- 16:20 바그다드를 떠나 암만으로
- 22:00 이라크와 요르단의 국경에 도착. 복잡한 출국 절차.

3월 6일 목

- 이라크에서 일주일간 반전활동을 전개한 이라크반전평화팀 10명 요르단으로 나왔다.
-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4인이 KLM 네덜란드항공편으로 13시 35분 출국하였다.
- 4인 참가자 : 배상현(열린사회회망연대), 유은하(한국이나뎀티스트센터), 이해종(열린사회회망연대), 임영신(성공회대 엔지오대학원), 주재일(뉴스엔조이 기자), 최병수(환경운동가, 화가)

3월 7일 금

- 4인이 요르단 암만에서 이라크반전평화팀과 합류하였다.

3월 9일 일

- 김력균, 이윤벽 개인 사정으로 한국에 귀국하였다.
- 정재원 휴먼셴드 대표자들 추방사건 등의 계기로 휴먼셴드에서 나와 요르단 암만으로 합류하였다. 이라크에 한상진만 남았다.

3월 11일 화

- 은국, 허혜경 국내 운동과 이후 활동을 위해 한국에 귀국하였다.
- 은국, 허혜경 귀국 기자회견을 오후 12시 1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하였다.
- 이라크 재입국 1팀(임영신, 최병수, 최혁) 현지시간 새벽 4시 암만에서 출발하였다. 다음날 12일 오후에 바그다

드에 도착하였다.

3월 12일 수

- 이라크 재입국 2팀(박기범, 성혜란, 이해종, 정재원) 현지시간 저녁 8시 암만에서 출발하였다.
- 이라크 재입국 1팀은 한상진 팀장과 합류하여 유엔 항의 공동집회 참석하였다. 국제친우회 알 하쉬미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고 한국팀의 활동 등을 설명하였다.

3월 13일 목

- 오김숙이, 전승로는 암만에서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책임자, 암만 NGO, 한국 교민, 선교사 등 접촉하여 난민구호활동 준비하였다.
- 이라크 재입국 3팀(배상현, 유은하, 주재일) 저녁 9시 암만에서 출발하였다.
- 이라크 재입국 1팀은 바스라 지역을 조사하였다.
 - 노플라이존 내 영국군 폭격으로 인해 가장 최근(지난해 12월) 폭격피해를 입은 피해자 민가방문 조사하였다. 아버지는 다리를, 6살짜리 아이는 배에 파편이 박히며 손가락이 잘리고 배에 파편을 제거한 큰 흉터를, 2살짜리 동생은 열화우라늄탄 영향으로 다리에 이상근육이 생겨 절단 수술을 받은 상태, 그러나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다.
 - 아동전문병원 방문 경제제재로 인한 아동들의 피해현황 조사하였다. 매달 바스라에서만 600명이 아이들이 경제 제재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 소아백혈병 비율이 상당히 높으나 한달 6달러의 봉급을 받는 의사는 노바티스사의 백혈병 신약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였다.
 - 걸프전 당시 열화우라늄탄 집중 폭격지역 방문하였다. 현재까지도 우라늄이 유출되고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곳에서 임종진 기저는 사진을 찍고 최병수 팀원은 부시 마스크를 쓰고 열화우라늄으로 폭파된 탱크에 올라가 퍼포먼스를 하였다.
 - 열화우라늄탄의 영향으로 병들어 가는 야자나무 숲 일대 방문 및 조사하였다.
- 이라크 재입국 2팀은 해방광장에서 한국 각 단체에서 보낸 현수막 6개를 걸고, 지난 입국 때 이라크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건 현수막을 보수하였다.

3월 14일 금

- 2차 이라크입국 1, 2팀 아이들과 '피스'를 외쳤던 올드바그다드에서 한국에서 보낸 사진과 엽서를 전시하는 반전캠페인을 벌였다.
- 부시 미대통령 17일 시한 발표 후 이라크 내 반전활동가들 이후 진로 논의하였다.
- 오수연(민족문학작가회의), 민주노총 대표단(김형탁, 이창근, 김정욱)이 출국하였다.

3월 15일 토

- 1팀 중 최병수는 바그다드 숙소에 머물며 걸개그림을 걸기 위한 준비하였다.
- 1팀 중 임영신, 최혁은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접경지역 모술을 방문해 전쟁 전 쿠르드족의 현황 및 내전 가능성 조사하였다.
 - 모술에서 대학가 방문, 쿠르드 족 20여명 인터뷰 : 시아와 수니, 크리스천이 친구로 지내고 있었으며 한 쿠르드 전문식당에서 12년간 함께 일하고 있었다. 쿠르드는 이라크와 형제이며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내전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바그다드를 향하였다.
- 2팀은 바그다드 내에서 고아원 등 방문활동을 하였다. 밤에 1팀과 합류하여 이라크에서 나오는 시기를 결정하려 하였으나 1팀내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2팀 자체적으로 17일 밤 바그다드를 출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배상현은 1, 2팀이 바그다드를 떠난 후에는 휴먼실드로 결합하기로 결정하였다.
- 요르단 난민구호준비팀은 요르단 암만에서의 반전집회 참가하였다. 요르단 정당들, 팔레스타인인, 요르단 머물고 있는 휴먼실드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유엔 건물까지 행진하였다. 오김숙이, 전승로가 한국에서 보낸 아이들의 그림을 들고 참석, 많은 호응을 받았다.
- 요르단에서는 난민지원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없었다. 15일 새벽 요르단에 도착한 민족문학작가회의 오수연, 15일 저녁 민주노총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민주노총 대표단과 서로에 대한 활동계획과 이라크 비자추진상황에 대한 조언과 의견을 나누었다.

3월 16일 일

- 이라크 재입국팀 대형결개그림(아만의 등지) 걸기를 진행하였다. 유은하는 결개그림 위에서 춤사위를 진행하였고, 결개그림을 걸고 나서 평화의 강강수월래 및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 이창용(경남열린사회회망연대) 출국하였다. (다음날 이라크반전평화팀에 합류하였다)

▶ 유은하씨 일지 중, 타흐리 광장 대형결개 걸기 행사

"4시 즈음, 1,20명의 평화운동가들이 협력하기 위해 광장으로 오고, 이라크 방송사도 왔습니다. 그림은 바닥에 깔려 있고, 저는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복채는 박기범 씨가 잡고, 저는 팽과리를 들었죠. 리허설이고 뭐고 없는 채로 그냥 팽과리를 울리며 그림으로 올라섰습니다. 전의 편지에 쓴 그 시의 내용대로, 지구 위를 느린 걸음으로 걸으며 한국 춤사위를 추고, 미사일 발에 들어서는 파괴와 고통을 표현하고, 그 마음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어 아이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울었습니다. 실은 그림에 들어서기 전부터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개전을 하루 남겨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그림 걸어놓고, 춤추고, 우는 것... 그 다음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마치 제 몸이 아닌 것처럼 그림 위를 구르고, 용수철처럼 튀고, 울고 목소리가 그치고 음악이 흐를 즈음엔 아바야를 벗어두고 다니다, 흰 천을 들고 사람들을 향해 호소하고, 그리고 한 아이를 데려와서 같이 그림 위에 앉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한국팀과 각 평화 운동가들이 한 아이씩을 데려와 그림 위에 같이 앉았습니다.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의 미래를 죽이지 마세요" 였던 거죠."

3월 17일 월

- 세계 각국에서 온 활동가들과 함께 티그리스 강 촛불시위를 진행하였다.
- 이라크 재입국팀 3인(배상현, 유은하, 한상진)을 제외하고 요르단으로 나왔다.
- 유은하, 한상진은 IPT로 합류하였다. (IPT는 당시 29명 체류, 휴먼 실드는 5-60명 가량)
- 배상현은 휴먼실드로 합류하였다. (북바그다드 비군사 시설 사이트 중 발전소로 지원배치)

3월 18일 화

- 이라크 재입국팀 9명은 요르단에 있는 한국팀과 합류하였다.
- 임종진은 기자의 신분으로 이라크에 남았다.

3월 19일 수

- 배상현은 팀과 한국의 지원단체와 논의 후, 발전소에서 나와 한상진, 유은하와 합류하기로 결정하였다.
- 요르단에 있는 반전평화팀은 이라크 현지에 팀원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요르단캠프를 운영하며 상황실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라크 상황을 파악하고 이라크에 있는 3명의 팀원들의 안전을 강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밖에 요르단 현지에서 할 수 있는 반전행동과 난민지원활동을 전개 및 준비하였다.
- 오김숙이 공동대표는 대표직을 사임하였다. 이창용, 새 팀장으로 결정되었다.
- 요르단의 반전평화팀은 전체회의를 통해 팀원들의 이후 거취에 대한 의사를 다시 확인하였다. 귀국을 준비하

- 는 팀원(오김숙이, 전승로, 최병수, 이해중, 정재원)와 요르단에서 활동을 지속할 팀원(박기범, 임영신, 이창용, 최혁, 주재일, 성혜란)으로 확인되었다.
- 요르단 활동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였다. 언론담당자에 임영신, 난민지원담당자에 주재일, 오수연, 이라크 현지 상황 파악은 정재원 등
- 3월 20일 개전 예상에 따른 대책으로 전쟁 중단 요구성명 발표하였다. 거리에서의 행동 계획 모색하였다. 임영신은 단식을 시작하는 등 개전에 항의하고 전쟁 중단을 촉구할 계획을 논의하였다.
- 이라크에 들어가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월 20일 목

- 현지시각 새벽에 공습이 시작되었다.(개전)
- 배상현은 발전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발이 묶였지만, 오후에 북바그다드 발전소에서 철수하여 한상진, 유은하와 합류하였다.
- 이라크반전평화팀은 요르단 암만에서 새벽 5시 기자회견을 열어 침공 항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국에서는 공동으로 오후 1시 미대사관 앞에서 진행하였다.
- 임영신은 전쟁중단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하였다.
- 이라크에 있는 3명은 병원과 숙소를 오가며 활동을 시작하였다.
- 정재원은 오후 7시 30분에 러시아로 출국하였다.
- 귀국을 준비하던 팀원들의 항공편이 취소되었다.

▶ 유은하씨 일지 중, 첫 번째 폭격, 그 이후

"3월 20일 새벽, 첫 번째 바그다드 공습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짐들을 반공호로 내려놓았는데, 그리고 한상진 선생님 방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30분쯤 누웠을까 우웅-비행기 날아가는 소리와 폭음,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에 깨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나보다 깨었는데 하늘에서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얼른 창가로 나갔더니 하늘 곳곳에서 번쩍번쩍, 여기 저기 폭음, 땅에서의 웅사 소리, 폭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자동차들은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새들의 아름다운 지저귀이 더 슬프게 들리고, 길거리 개들도 어디론가 도망칩니다."

3월 21일 금

- 유은하는 CPT 소속 참가자들과 함께 정수시설 자원배치에 참가하였다.
- 요르단의 반전평화팀은 암만 반전집회 참가하였다. 그 날 집회는 격렬한 투석전이 전개되었다.
- 저녁 민주노총 대표단과 간담회 : 서로의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서를 내기로 함

3월 22일 토

- 요르단의 반전평화팀은, 이라크에 있는 팀원들이 한국대사관 출입 금지를 당하는 사태에 대해 요르단 한국대사관에 항의하였다.
- 요르단의 반전평화팀은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 대표단과 함께 요르단 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한국군 파병반대 공동성명서 발표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한국군 파병에 항의하고 대사관에 전달하였다.
- 이해중, 최병수는 귀국을 위해 저녁 8시 35분 요르단에서 출국하였다.

▶ 임영신씨 일지 중.

10시, 민주노총 국제노동자파견단 3분과 한국 반전평화팀 활동가 11명이 함께 모였다. 매일 아침 파병된 군사들을 향해 묵념을 올린다는 미국인들의 천박한 기도를 떠올리며 우리는 이라크의 무고한 시민들을 위한 목례로 우리의 파병반대 집회를 시작했다.

대열을 정비하고 사람들은 저마나 최병수 작가가 이곳에서 그린 메두사 부시 그림을 들었다. 부시의 머리에 이라크 아이들의 잘린 목이, 그의 귀에 수류탄이 그의 컬러에 성조기가 그려져있는 그 참혹한 그림을 들고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3월 23일 일

- 배상현은 밤사이 폭격으로 피해입은 곳을 둘러보았다. 오후 3시경 다시 공급 시작되어 급히 정수장으로 돌아갔다.
- 유은하는 폭격 속에 이라크 소녀의 생일파티에 참가하였다.
- 요르단의 반전평화팀은 아침 9시 한국대사관 앞에서 파병반대 시위를 진행하였다.
- 뉴스엔조이를 통해 요르단 정부에 3인의 프레스 카드를 신청하였다.
- 오김숙이, 전승로는 귀국을 위해 아침 9시 35분에 요르단에서 출국하였다.

3월 24일 월

- 이라크의 반전평화팀은 IPT 회의에 참석하였다. 세 팀으로 나뉘서 활동하기로 하였다. 한 팀은 주요 폭격지역 다니면서 민간시설피해에 대한 조사, 한 팀은 엘콧병원을 돌아보기로 하였다. 나머지 한 팀은 고아원을 다니기로 하였다. 이라크는 대통령 궁, 외무부 건물 등 정부청사들도 모두 무너져 내렸다. 총 사상자가 24일까지 4500여명으로 알려졌다.
- 요르단의 반전평화팀은 오후 3시 요르단대학 집회 참여하였고, 오후 5시 팔레스타인 집회 참여하였다. 요르단 국무총리 난민정책 기자회견 참가하였고 박노해와 간담회를 가졌다.
- 이혜중, 최병수 오전 11시 20분에 귀국하였고 오김숙이, 전승로가 오후 12시 15분에 귀국하였다. 오후 12시 30분 2차 귀국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3월 25일 화

- 한상진, 유은하, 배상현은 정수시설 및 병원 다니면서 피해조사 및 구호활동을 하였다.
- 요르단의 반전평화팀, 이창용 팀장이 사임하고 최혁, 새 팀장으로 결정되었다.
- 요르단의 반전평화팀, 최혁 팀장은 프레스 카드 신청하였고 4인의 국경방문 허가증 발급받았다.
- 인터컨티넨탈 난민구호 활동 관련 기자회견 참여하였다. 마리와 나자렛 성당 반전에배에 참여하고 적신월사가 만든 국경 난민 텐트촌에 다녀왔다.

3월 26일 수

- 이라크 쇼핑타운 거리에 미사일이 떨어져 한꺼번에 35명이 즉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 요르단의 반전평화팀, 요르단 국경지역 난민캠프 순회 및 관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랑의 오아시스, 한겨레 팀과 함께 최혁, 임영신은 적신월사가 만든 루이쉴드의 국경 난민 텐트촌에 다녀왔다.
 - 39만불을 들여 만든 난민촌에 현재까지 이라크 난민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217명의 자원봉사자에 207명의 난민, 그것도 제 3국 난민이 머물고 있을 뿐이었다. 또한 난민촌을 자유롭게 조사할 수 없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난민구호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외부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들의 난민구호정책이 얼마나 이라크의 정서를 무시하며 큰 돈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목격했다.
- 신성국, 김하운(서의윤)이 출국하였다.

3월 27일 목

- 이라크 알 파나르 호텔에서 IPT 활동계획 논의가 진행되었다.
 - 크게 주요폭격 지점 돌아다니면서 민간인 피해사례를 찾고 인터뷰, 서류로 작성하는 것.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을 만나고 응급치료와 상황점검 병행하였다. 알 웨스바 정수장에 상주하면서 주민들과 동행, 고아원과 병원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것. 호텔의 현수막걸기
- IPT를 중심으로 전쟁범죄 국제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 요르단의 반전평화팀, 아침에 한국의 파병동의안 처리가 갑자기 오늘로 앞당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후에는 각국의 활동가들에게 이 내용을 담아 선전하고, 저녁에는 한국대사관 앞 파병반대 촛불시위를 진행하였다. 이후에는 각국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Peace Coalition 함께 결성하였다.

3월 29일 토

- 이라크 모든 통신수단 마비됨으로써 배상현은 3명이 기록한 전쟁보고서 들고 암만으로 나왔다.
- 요르단의 반전평화팀은 촛불시위를 진행하였고 현지인들과 함께 로마극장에서 한국군파병반대 집회를 가졌다.
- 이라크에서는 IPT 내 4명이 이라크에서 나아가야 하는 문제로 계속 토론을 거듭한 결과, 그중 한상진과 유은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한국인이 한명 남았으면 좋겠다는 결정에서 유은하가 남기로 결정하였다. 유은하는 정적 상태나 이라크에 온 임무등을 생각해 정수장으로 가기로 결정.

3월 30일 일

- 배상현은 암만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무사히 암만에 도착하였다. 그동안 기록한 이라크 전쟁범죄 보고서를 들고 나왔다.

3월 31일 월

- 유은하, 정수장에서 활동을 지속하였다.

4월 1일 화

- 한상진, 이라크 당국으로부터의 IPT 회원들의 추방 조치에 따라 이라크에서 나왔다.
- 요르단의 반전평화팀, 4명의 팀원이 이라크 재입국 시도하였고 그 중 박기범만 이라크에 입국하였다.
- 배상현, 한국군 파병에 반대해 국적 포기를 선언하였다.

4월 2일 수

- 한국 국회가 한국군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켰다.
- 한상진, 이라크에서 나오던 중 피격을 당했지만 무사히 요르단 암만에 도착하였다.
- 박기범, 이라크 바그다드 도착하여 유은하와 합류하였다.
- 임영신, 파병동의안 통과에 반대해 국적 포기를 선언하였다.

4월 3일 목

- 배상현, 임영신이 귀국하여 오전 11시에 귀국 기자회견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하였다.
- 배상현, 임영신은 오김숙이, 은국, 이혜중, 허혜경, 지원연대와 함께 파병동의에 대한 항의의 뜻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하기 위해 청와대 항의방문을 진행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지만 항의 서한을 전달하였다.

4월 4일 금

- 이라크는 3일째 모든 통신수단이 단절되었다. 전기마저 자주 끊겼다. 미군이 바그다드 공항에 들어왔으며(속소에서 5km), 여전히 거센 폭격이 진행되고 있었다.
- 이라크에 머물고 있는 IPT 회원은 모두 16명. 박기범, 유은하는 미서너리 오브 채리티 방문하였다.

4월 5일 토 - 7일 월

- 유은하, 미서너리 오브 채리티 방문, 자원 활동을 계속하였다.

4월 8일 화

- 귀국한 반전평화팀이 명동성당에서 이라크 침공 중단과 한국군 파병 저지를 위한 농성을 시작하였다.

4월 9일 수

- 이라크 팔레스틴 호텔 앞까지 미군 들어왔다.(바그다드 함락)
- 유은하, 박기범 포함 IPT 회원들은 'Courage of peace is not for war' 등의 글씨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 요르단의 반전평화팀은 매일 일정으로 아랍어 공부를 진행하였고, 크리스찬 피스메이커 팀 만남을 가졌다.

4월 10일 목

- 박기범, 유은하는 IPT 회원들과 함께 야만의 등지 걸개그림을 도로에 깔고 그 위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 요르단의 반전평화팀은 UNDP, WHO, 적신월사 등을 방문하여 한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약품류를 알아보다. 일본JVC 방문.
- 바그다드 조성수 기자로부터 위성으로 국경이 열려있으며 병원에 마취제가 부족해 마취제조차 없이 수술을 하고 있다는 긴급 지원연락을 받고 임영신은 다시 출국 준비 및 한겨레 의약품 캠페인 팀과 마취제 수송 협력을 요청하였다.

4월 11일 금

- 이라크에서 휴먼셴드의 마지막 시위가 진행되었다.
- 박기범, 유은하는 야만의 등지 위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4월 12일 토

- 박기범, 이라크에서 나오기로 결정하고 요르단으로 향하였다.
- 임영신 한겨레 '어린이에게 의약품' 캠페인팀과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진과 함께 의약품 가지고 오후 6시 30분 아랍에미레이트 항공편으로 출국하였다.

4월 14일 월

- 임영신 한겨레 기자와 함께 의약품 가지고 이라크 입국하였다.

4월 15일 화

- 임영신, 유은하를 만나 합류하였다. 유은하는 장애인 및 아동시설을, 임영신은 병원 및 빈민지역을 조사하기로 역할 분담 후 조사작업을 진행하였다.
- 유은하, 평화운동가 3명(IPT의 미국인 Martin, 이탈리아인 Marinala과 Pietro), 이라크인 Salam과 함께 장애아

동 시설 첫 방문하였다.

- 한국반전평화팀이 가져다 준 사탕과 과자, 설탕 등을 전달하고, 시설을 돌아보다.
- 모하메드 등 몇 사람을 만나 상황을 파악하다. 전쟁 전 36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그 중 14명의 사람들만 전쟁 중 아이들과 함께 지냈다고 함. 2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했음. 전쟁 전 85명의 장애인(아동 포함)들이 있었으나 40명은 가족이 데리고 갔고, 가족이 없는 45명만 전쟁 중 이곳에서 지냈다고 하였다.
- 다녀 온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월급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였다.

- 임영신, 전쟁중 남아있던 프랑스인 닥터 자크의 도움으로 바그다드 내 운영중인 병원 3곳 방문 및 조사를 진행하였다.

- 현재 열려서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들은 모두 전쟁 중에도 진료를 멈추지 않았던 병원이었다고 이 병원들은 서구의 NGO에 의한 지원이 아니라 이라크 의사들 스스로가 두 달간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병원을 총을 들고 지켜낸 곳들이었다.
- 병원의 치안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수비대를 조직해 약탈로부터 병원을 지키고, 여자들은 환자들을 위해 빵을 굽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미군은 석유부와 외신이 묶고 있는 호텔만을 지키뿐 어떤 병원을 위해서도 일하고 있지 않았다.

4월 16일 수

- 유은하, 마리넬라, 쌀람과 함께 다시 알 하난 장애아동시설을 방문하였다.
- 매니저가 없는 상황에서 일꾼들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음 제이남을 만나서 전쟁 중 근무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일부는 근처 브라파 모스크의 이맘 알리에게 약간의 돈을 받았으므로, 그 명단에서 누락된 11명에게 그들이 전쟁 전 받았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4\$ 정도)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 전쟁 중 전기시설이 파괴 되었을 때 이맘 알리가 소형 발전기를 이곳에 지원하고, 대신 차 2대를 가져갔다고 하였다. 다음날 정도 이맘을 찾아가 만나기로 하였다.

- 임영신, 전쟁 중 유일하게 문을 열고 하루 35건에 이르는 진료를 했던 사담 정형외과에 전신 마취제 및 부분 마취제 전달하였다.

- 임영신, 2차 의약품 전달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 바그다드 뇌전문 아동병원, 알와시티 아동 병원, 야목 병원 방문하였다.
- 병원 책임자, 간호사, 환자 등시 인터뷰 및 의약품 필요리스트를 요청했다.
- 이후 구호활동을 위한 정보 입수를 위해 국제적십자 바그다드 사무소 방문하였다. 병원들이 발전기가 없어 수술실 조명도 쓰지 못하는 상황가운데 국제적십자 사무실은 미군 탱크의 호위속에서 자가발전기로 에어컨을 틀어놓고 상황이 안정되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7일전 바그다드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실무 팀들은 요르단으로 일단 철수를 한 뒤였다. 국제적십자를 방문하고 나오는 길, 너가 깨어진 여동생을 부둥켜 안은 한 남자가 호위하고 있는 미군을 찾아와 군의관을 요청했으나 그들은 인근에 문을 연 이라크 병원으로 이들을 보냈다.

4월 17일 목

- 이라크전 한국군 선발대를 파병하였다. 한국의 반전평화팀은 파병에 대한 항의로 광화문의 도로를 점거하면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이후 전원 연행되었다.
- 한상진, 성혜란, 오수연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진과 함께 밤 12시 이라크로 입국하였다. 미국 평화 운동가 케씨 켈리, 전쟁 중 이라크에서 의료 봉사를 한 프랑스 의사 자끄 레베를 인터뷰하였다.
- 유은하, 쌀람과 함께 알 하난 장애아동시설을 방문하였다.
- 11명에게 지원금(총 45\$)을 전달하였다.

- 집이 멀고 차가 없는 현 매니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이 근처에 사는 6개월 전 매니저인 나달이 이곳 운영을 돕겠다고 찾아와 매니저실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 본관의 매니저실 맞은 편 물리치료실을 사용하기로 허락받았다.
- 쌀밥의 친구 아드난을 통해서 사무실에 필요한 월급봉투 등의 문구류를 구입하였다.
- 매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기로 결정(금요일 휴무, 주일 오후 2시-6시)하였다.
- 사무실 정리하고 청소하였다.
- 바그다드 빈민지역 사담 시티 조사 및 병원 방문 의약품 상황 체크하였다.
- NCCI(이라크 NGO 협의기구)에 참여하였다.
- 바그다드 병원 상황 및 구호단체 현황, 구호계획 등에 대한 정보교환
- 임영신 한국군 파병을 맞이해 주민등록을 반환하고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

4월 19일 토 - 22일 화

- 임영신 한상진 성혜란 등 도착한 팀원들과 함께 병원 2차 방문 및 조사를 진행하였다.
- 아마르의 안내로 뉴바그다드 빈민지역 진료소 방문 및 조사 시작하였다. (3차 리포트 참조)알 사둔 병원 방문 조사. 알 후다이리아, 알 마스바 지역 방문 조사.
- 뉴바그다드 지역의 모스크 내에 자원봉사자를 모으고 민간 수비대를 조직해 이라크인들 스스로 만든 작은 진료소 5곳 및 그 지역 병원 현황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진료소 지원을 위한 의약품 및 의료진 지원 요청하였다.

4월 20일 일

- 유은하, 전쟁 전 정부에 의한 월급 지불일에 기준하여,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약 7불(17500디나르)를 45명에게 지불하였다. (재정지원을 한다는 소리를 들은 직원들이 시설로 복귀하기 시작했고, 몇 명의 자원자들이 찾아옴) 매니저인 Karyma가 복귀.
- 사담 시티에 있는 두 개의 종합병원, 알 까디시아, 추왈라 병원(Dr. Mowfark Korea)과 사담 성형외과 병원 방문 조사하였다.

4월 21일 월

- 유은하, 근무를 계속하였다.
- 외국 언론들이 찾아오면 때때로 촬영 협조 중앙일보, MBC 등 방문, 촬영, 후원금 및 약품 전달
- 최혁 팀장, 의료진과 함께 의약품을 들고 이라크로 입국하였다.
- 야목 병원과 뉴 바그다드 알 압바르 모스크에 있는 진료소(Dr. Salah Al Hassan), 알 마하밀, 알 우바이디아 지역 방문 조사하였다.

4월 23일 수 - 25일 금

- 2차 의료진, 반전평화팀 공동으로 3차 병원 방문 조사 및 의약품 수요 현황을 파악하였다. 알 싸마라이 모스크 진료소, 모하마드 알바디 모스크 진료소, 알 바디아 학교 진료소 방문 조사(23일). 알 하비비 병원(Dr. Najee Jassim Mohamed, Dr. Mahmoad Jassim Mohamed Ali) 방문 조사. 알 까디시아 재방문. 알 까리마 병원에 있는, 불발탄을 갖고 놀다 터져 화상 입은 어린이들 방문. 담당의 Dr. Bidal Salman Al Rani 면담.(24일), 알 아민 보건소(Dr. Ammar E Sabur, Dr. Ammar Nagheed), 알 수마야 모스크 진료소, 알 무스타파 모스크 진료소 방문 조사. 알 까마리아 지역(Dr. Jasim Muhammad, Dr. Baha Khadun) 보건소를 방문하여 쓰레기, 하수도 문제가 심각함을 절감. 하수도 시설이 없어 더러운 물이 길가로 흐르고, 그 물에 수도관이 오염되어

- 하루에 1000명 정도의 설사 환자 발생. 전쟁 전부터 있던 문제였으나, 전쟁으로 가스 공급이 중단되어 물을 끓여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재난이 되었다.
- 수아드와 함께 장애인 시설, 고아원, 사회복지 시설들을 파악해 전쟁 전 이라크 사회복지 시스템을 파악하고 현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점들을 조사하였다.
- 음식이나 식수 등은 충분했으며 한 고아원의 경우 38명의 고아들 중 전쟁 후 33명의 아이들을 친인척이 찾아와 데려갔다. 3명의 교사가 아이들을 버리지 않고 전쟁을 함께 버텼다. 모든 옷이나 음식등은 비축분이 충분하나 두달 째 급여를 받지 못하는 직원들의 급여 문제, 전기가 없어 식품들을 아이들에게 주지 못해 발전기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월 25일 금

- 김하운, 박기범, 성혜란이 한국에 일시 귀국하였다.

4월 26일 토

- 한겨레 의약품 지원팀과 함께 라파엘 병원, 바그다드 산부인과 전문병원, 화상전문 병원, 알 까리마 병원, 알 누르 병원과 알 압바르, 알 까마리아 진료소, 보건소 등에 2차분 긴급 의약품 전달하였다. 뉴 바그다드 지역 이슬람 지도자 카셈과 면담. 알 히크마 모스크 진료소 방문 조사. 국제 구호 단체 미팅에 참석. 보건의료단체 연합 2진 의사 선생님들이 갖고 오신 약 분배를 돕다. 분배.

4월 27일 일 - 4월 28일 월

-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 전쟁피해 현황 조사 투어를 진행하였다.
- 쿠르드족 실종자 가두 캠페인 : 쿠르드 족 중 실종된 18만 5천 명중 중요한 사례들을 거리에 전시해 두고, 실종자 가족 위원회를 구성해 그들에 대한 신원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려는 거리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었다.
- 오일필드 조사 : 미군이 완벽하게 통제를 하고 있었으며 외부인은 절대 출입이 불가능했다.
- 학교방문 : 당일 학교를 폐쇄하며 키루크 지역 전체 교사가 모여 향후 학교정상화를 위해 회의를 하고 있어 회의에 참여하고 아이들의 파티에도 참여했다. 수십명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파티를 하고 있었다.
- 폭격피해가 적어 전쟁의 피해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미군을 환영하는 글귀가 여기 저기에 써있고 쿠르드의 독립을 원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내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들에 대해 독립을 원하지만 내전은 원치않으며 연방제도 고려하고 있다는 정책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4월 28일 월

- 유은하, 직원들의 신상명세와 아이들의 명단 및 상태에 대한 서류 작성을 지속해 나간다. 업무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 가능성을 쌀밥 및 매니저 케리마와 의논하다.
-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케리마조차 구호단체나 외국인론, 주변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돈과 물품 등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자신이 챙기거나 집으로 가져가고, 직원 이부 알라(Dar Al Hanan에 거주)가 구호품들을 챙기는 것을 묵인하거나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송광욱, 이용욱, 고수정 선생님들이 알 마시달에 있는 알 몬타다 보건소에서 진료하시는 것을 돕다. 환자들이 몰려들어 앓을 새도 없었다.

4월 29일 화 - 30일 수

- 임영신, 한상진 빈민지역 쓰레기 현황을 조사하였다.
 - 시장 및 뉴바그다드 내 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한 거리 조사. 하수구가 망가져 거리가 오염된 물로 넘쳐나는 상태였고, 아이들이 그 거리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사담시티, 뉴바그다드 모두 쓰레기 문제는 전쟁전부터 있던 고질적인 문제였으며 전쟁으로 인해 정부가 하던 쓰레기 수거작업이 중단되어 쌓여서 부패하는 쓰레기로 인한 오염, 보건위생 상의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는 중이었다.
- 오수연, 진료소를 지원하였다.

4월 29일 화

- 유은하, 오전 중 삼푸를 지급하고, 저녁에 비누를 사러 돌아다녔다.
- 유은하, 쌀람과 함께 알 누르 시각장애인 학교에 첫 방문하였다.
 - 알 누르 시각장애인학교 문은 닫혀 있었고, 한 사람이 나와서 전쟁 중과 후, 이곳을 방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지금은 매니저와 몇 명의 직원이 아침에 모여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갖는 정도라고 설명하였다.

4월 30일 수

- 유은하, 알 카데미아 병원에서 매일 오전 이곳에 아이들을 돌아보러 오는 여의사와 만났다. 마즈다(42세)가 배 부근에 심하게 육창이 났는데도 전혀 돌아보거나 치료하지 않았던 간호사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 유은하, 오전 9시에 쌀람과 다시 학교를 방문해서 매니저와 몇 사람들을 만나고, 학교상황을 살폈다.
 - 전쟁 중 약탈로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 전쟁 전 직원과 학생을 포함 160명이 있었고, 이 중 88명은 직원이 다(교사 포함). 지금은 아침 8-9시 정도에 매니저와 직원들이 몇 명 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조급씩 청소를 하고 있는 정도라고 했다. 전쟁 전 61명 정도가 이 곳에서 함께 생활을 했지만(남자 방 6개, 여자 방 3개) 지금은 학생들이 남아 있지 않았다. 가족이 데려가기도 하고, 누군가가 와서 사람들을 데려갔다고 전했다. 매니저에게서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명단(20명)을 얻고, 건물 상태에 대한 사진을 찍었다.
 - 학교상황에 대한 긴급한 보도 및 지원요청 자료를 작성하여 Voice in the wilderness의 Ramzi, BBC 프리랜서 기자 니콜라스와 Islamic relief 대표에게 전달하고 상황을 설명하며, 방문약속을 받았다. 보도자료를 알 파 나르 호텔, Dar Al Hanan에 부착하였다.

5월 1일 목

- 유은하, 프랑스 의료지원 단체에서 일하는 Akim이 방문, 비스켓과 의약품 제공을 약속받다. 이곳 간호사가 적어 준 필요약품 리스트를 아킴에게 전달하였다.
- 바그다드 외곽지역 이라크 군이 방치한 무기 사이를 뛰어노는 아이들, 병원에서 방치된 무기를 가지고 놀다가 폭발로 숨지거나 다친 아이들을 수없이 만난 후 원인이 되어온 무기 방치지역 방문 조사, 수천개의 미사일이 마을 사이에 그대로 널려있고 아이들은 그 속에서 뛰어놀고 있는 상황, 미군측에 몇차례 진정을 했지만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그대로 방치해 두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태였다.

5월 2일 금

- 알투와이파 지역 핵발전소 주변 마을들 방문 조사하였다. 우라늄 공장을 약탈해 천연우라늄이 담겨 있던 통을 맨 손으로 씻어 물까 쌀을 담와 사용하고 있던 60여가구의 가난한 마을 주민들 가정 방문 조사, 그들의 건강 상태 및 필요체크, 한 임신부는 기형아 출산에 대해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었고 이미 마을안에 우라늄의 영향으로 2명의 기형아가 있었다. 그러나 미군이 핵발전소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마을 사람들의 우라늄 노출로 인한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던 상태였다.

- 알 까마리아 지역 청소 사업 시작.
- 유은하, 아침 8시 30분에 알 누르 시각장애인학교를 방문하였다.
 - 20명에 대해 개인 당 15000디나르(약 8\$)을 지불하였다.(총 158\$)
 - IPT가 남기고 간 식수(2LX36병)를 전달하였다.
 - 매니저인 바틀에게 캐나다 'Teachers of Peace and Justice'에서 보내온 문구세트와 편지를 전달하였다.
 - 전날 작성한 보도자료를 매니저에게 전달하고, 학교 문에 부착하였다.
 - 매니저 옆 방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 이라크민중지원활동 1차팀(김하운)이 출국하였다.

5월 3일 토

- 유은하, 물리치료사인 므나의 가정에 초대받아 식사교제
- 유은하, 아침 10시에 알 누르 시각장애인학교를 방문하였다.
 - 일주일의 3일을 이 곳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하였다.(토, 월, 수 오전 10시-오후 6시)
 - 당일 학교로 복귀한 직원과 교사를 51명에게 약 8불씩을 지급하였다(현재까지 71명 복귀), Dar Al Hanan의 므나, 싸마라 등이 와서 계산 및 월급지불과정을 도왔다.
 - 한국반전평화팀으로부터 식수를 받아(2LX60병) 매니저에게 전달하였다.
- 임영신 혼자 바그다드에서 압만을 넘는 국경택시를 타고 나왔다.
- 정신병원인 알 라시드 병원(Dr.Fahed Abbas) 방문 조사.

5월 4일 일

- 유은하, Dar Al Hanan의 교사인 제이남 가정 방문, 식사교제
- 뉴바그다드 '알까마리아' 지역 및 올드바그다드 지역에서 빈민 지원활동 진행
- 한상진, 오수연 팀원, 바그다드와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전쟁범죄 보고를 위한 조사 활동. 이라크 남부 알 나 시리아, 알 나자프, 알 쿠드스, 바스라 방문 조사. 미군이 쿠웨이트에서 밀고 들어온 국경 지역 '사르판' '움 카 사르' "알 파우"방문. 바스라 어린이 병원 방문. 아랍계 미국인 구호 단체 '라이프'에서 운영하는 병원 방문.

5월 5일 월

- 유은하, 국제기아대책기구와 한동대선린병원에서 방문, 진단 및 처방에 협조하였다.
- 유은하, 아침 10시에 알 누르 시각장애인 학교 방문하였다.
 - 당일 학교로 복귀한 7명에게 8불씩을 지급하였다(현재까지 78명 복귀)
 - 아부 가립 감옥에서 근무하던 일꾼 1,200명이 직업을 잃고 학교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전기 시설과 창문, 차에 대한 견적 파악에 들어갔다.(책임: 쌀람과 아드난)

5월 6일 화

- 유은하, 삼푸와 비누 이틀치 지급 및 방 1,2에 있는 여성 장애인들의 목욕 돕기
- 유은하, 지역 개발 컨설턴트 이집트에서 오신 한국인 의사 김누가 씨를 만나 향후 계획 의논.

5월 7일 수

- 유은하, 아침 8시 30분 알 누르 시각장애인 학교를 방문하였다.
 - 일꾼 3명이 와서 유리 복구를 시작하다. 건물이 3개이므로 본관부터 시작하였다.
 - 당일 학교로 복귀한 3명에게 8불씩을 지불하였다.(현재까지 81명 복귀)

□ 보건의료단체연합 3진 의사 선생님들 약 분배와 알 바디아 학교에서 진료할 준비를 도왔다.

5월 8일 목

□ 유은하, 삼푸와 비누 3일치 지급, 기아대책기구로부터 받은 처방약을 직원에게 전달(4명분 2달치)하였다.

5월 10일 토

□ 5월 15일부터 이라크 정부가 다시 업무를 재개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11일 장애인 시설을 관장하는 노동청 (Ministry of Work)이 회의를 갖는다고 하였다.

□ 유은하, 아침 10시에 알 누르 시각장애인 학교를 방문하였다.

- 유리창 복구 1차 비용으로 1000\$를 지급하였다.
- 7명의 어린 학생들이 등교하였다.

□ 이란계 쿠르드족의 난민촌 '알 타시 캠프' 방문하였다.

5월 11일 일

□ 이라크군이 버리고 간 무기에 뒤덮인 마을 '알 아민' 방문 조사하였다.

□ 오수연은 이후로 전쟁에 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취재를 시작했다.

5월 19일 월 - 21일 수 까지

□ 북부 이라크와 쿠르드스탄 모술, 키르쿱, 티그리트, 도혹, 슬레이마니아 방문 조사 등등.

5월 22일 목

□ 유은하, 최혁 한국에 일시 귀국하였다.

5월 27일 화 까지

□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파견한 의료진(1-6차)과 함께 빈민지역 순회하며 의료지원활동을 벌였다.

5월 31일 토

□ 한상진, 한국에 일시 귀국하였다.

6월 5일 목

□ 이라크민중지원활동 2차팀이 출국하였다.

- 참가자 : 최혁, 목지영(더불어숲), 이동화(성공회대 NGO대학원), 이상래(건축가)

6월 9일 월

□ 뉴 바그다드 내 알 카마리아 주요 헬스 센터 방문 및 견학하였다.

- 알 마시멜 헬스센터, 알 라하세 헬스센터, 셋필 알리 프라이머리 스쿨 방문(도서관 부지 알아보기 위해), 알 슈 하다 헬스센터

6월 10일 화

□ 알 마시멜 헬스센터 놀이터 도서관 만들기 준비를 위해 실측하였다.

6월 11일 수

▶ 일지 중에서

우리 팀 건축가 상래가 아름답고 쓸모있는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 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연못'을 만들자고 했다. 이곳 사 정과는 너무 동떨어진 낭만적인 생각일까? 팀원들은 아마르를 비롯한 이곳 사람들이 우리 계획을 어찌 생각할 지 궁금해 했다. 상래가 짠 연못 만드는 계획은 이런 것이다. 센터 안쪽으로 긴 집이 세 채 있는데 두번째와 세번째 집 사이 마당은 가운데 콘크리트가 깔려 있고 오른쪽에 화단이 있다. 화단은 바닥에서 30센티미터 정도 올라와 있는데 한 쪽 면을 막으면 물을 가둘 수 있게 생겼다. 이렇게 마당을 물로 채우고 아자나무 가지와 잎을 엮어 지붕을 만든다. 물을 댄 마당 군데군데 불력이나 나무로 짠 걸상을 놓아 사람들이 발을 담그고 앉아서 쉬게 한다. 화단에 나무를 좀더 심고 더 안쪽으로 큰 나무 여럿이 둘러진 잔디밭에 다 쓴 타이어 같은 폐품들을 모아 아이들 놀이터로 만든다. 마당 오른쪽 집은 방이 네 개 있는데 안쪽부터 차례로 어린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좀 큰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도서관 사무실, 시청각실로 꾸민다.

6월 12일 목

□ 연못 구체적인 준비 시작

□ 최혁 팀장과 수사님들과 함께 알 까마리아, 알 슈하다, 알 라하세를 방문하였다.

6월 14일 토

□ 쓰레기 집하장 만들기 답사를 진행하였다.

□ 이라크민중지원활동 3차팀이 출국하였다.

- 참가자 : 박기범, 성혜란

6월 15일 일

□ 알 마시멜에서 아부 하이달과 만나 도서관, 연못, 놀이터 만드는 계획을 의논하였다.

□ University of Technology 방문하였다.

6월 16일 월

□ 한상진, 출국하였다.

6월 18일 수

□ 알 마시멜 도서관 공사 시작하였다.

□ 라파엘 병원 방문하고, 천주교 평화연대 성금 일부를 전달하였다.

6월 20일 금

□ 박기범, 성혜란, 한상진, 바그다드에 도착해 합류하였다.

□ 알 마시멜 외벽 페인트 벗기기 작업을 하였다.

6월 21일 토

□ 알 마시멜 외벽 다듬기, 페인트 칠하기 작업을 진행하였다.

6월 22일 일

□ 알 마시멜 도서관 페인트 칠하였다.

□ 학용품 셋트 나누어 줄 준비를 하였다.

6월 23일 월

- 알타쉬 캠프 방문하였다.
- 유은하, 이라크로 다시 출국하였다.
- '이라크 전후 한국단체 이라크 구호활동 백서 발간 위한 설문지'를 각 구호단체에 발송하였다.

▶ 일지 중에서

어제 우리는 '알타쉬 캠프'에 다녀왔다. 사막 가운데에 놓인 마을. 그곳은 이란이 고향인 쿠르드족 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자연이 아주 좋다. 이곳에 사는 이들은 23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버려진 채, 그리고 고립된 채 있었다. 이란-이라크 전이 있던 때부터. 그 동안 이 지역에는 물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한 달에 통틀어 두어 시간. 23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이들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으로부터도 아무런 관심이나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란 정권으로부터도 어떤 도움을 얻지 못했다. 물이나 전기 사정은 형편없었으며 치안 또한 엉망이었다.

6월 26일 목

- 이라크민중지원활동 4차팀이 출국하였다.
 - 참가자 : 전승로, 오수연, 강인화(이화여대 대학원), 정희영(상지대학생), 이계순(의료지원단), 구철민(의료지원단), 장혜진(의료지원단)

6월 30일 월

- 알 마시멜 헬스 센터 도서관 공사 마무리 작업
- 의료 지원팀 활동 시작
- 알 후리아 지역에 전쟁피해자 만남

7월 1일 화

- 알 마시멜 병원에서 부항, 지압, 마사지, 침 시술을 하는 동양의료지원실 운영을 시작하였다. (천주교평화연대 김재복 수사님과 구철민)
 - 알 마시멜 어린이 도서관 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

7월 2일 수

- 알 마시멜 어린이 도서관 공사 및 개관 행사 준비를 하였다.
- 알 마시멜에서 동양의료지원실을 운영하였다.

▶ 일지 중에서

오늘도 알 마시멜 도서관과 놀이터 공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또다시 페인트 칠과 바닥청소, 도서관 입구로 들어서는 곳의 벽청소를 시작했다. 이미 건물 안과 벽, 창틀과 문, 건물 밖의 기둥은 모두 흰색페인트로 칠해져 있다. 오늘은 상래씨의 아이디어로 가장 중요한 창틀 주변을 짙은 파란색으로 칠했는데, 흰색 벽에 짙은 파란색의 조화가 멋지다는 생각이다. 깊고 푸른 바다가 생각나는 정말 멋지고 시원한 파란색이다. 도서관 바로 옆에 만들어질 연못 공사도 거의 마무리되어간다. 어제는 바닥에 자갈을 깔았고, 오늘은 자갈 위에 물을 가득 채운 페트병들을 올려놓았다. 승로와 해원, 동화씨가 페트병의 걸포장을 벗기고 물을 가득 담아 연못이 만들어질 곳으로 옮겨놓았는데, 주변에 쉽게 버려지는 물건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연못이 아이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색다르게 여겨질 거라 생각한다. 연못이 만들어질 곳 위에 망을 쳐서 멋진 그늘이 생겼다.

7월 3-4일

- 알 마시멜 어린이 도서관 개관 행사 초청장을 준비하였다.
- 도서관 페인트칠, 바닥청소, 놀이터와 주변 공터 청소, 그리고 수영장 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
- 알 마시멜 병원에서 동양의료지원실을 운영하였다.

7월 5일 토

- 도서관 개관 행사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오후에 알 마시멜 병원에서 동양의료지원실을 운영하였다.

7월 6일 일

- 알 후리아 병원을 방문하였다. 알 후리아 지역 종교지도자 이맘, 알 후리아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청년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 오후에 알 마시멜에서 동양의료지원실을 운영하였다.
- 평화팀 7월 계획 및 마무리작업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7월 7-8일 월

- 알 마시멜 어린이 도서관 운영을 시작하였다.
- 알 마시멜 어린이 도서관 주변 공터에 탄피와 유리조각을 줍는 청소를 한 뒤 아이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철망을 쳐놓았다.
- 알 마시멜 병원 동양의료지원실을 운영하였다.

7월 9일 수

-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 처형당한 사람들이 묻혀 있는 힐라 공동묘지에 다녀왔다.
- 알 후리아 병원에서 동양의료지원실을 운영하였다.
- 의료지원팀으로 온 이계순, 장혜진,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7월 10일 목

- 이계순, 장혜진, 이상래은 압만으로 출국하였다.
- 알 마시멜 어린이 도서관 운영, 어린이 도서관 연못과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부상당하였다.
- 알 마시멜 병원 동양의료지원실을 운영하였다.
- 고재진, 이라크로 출국하였다.

7월 11일 금

- 이라크 휴일인 금요일이라 동양의료지원실 운영 및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았다.
- 알 마시멜 어린이 도서관에서 진행할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7월 12일 토

- 전쟁피해조사활동을 위한 답사 및 장애아동 시설을 돌아보기 위해 최혁팀장과 살람, 바스라로 출발하였다.
- 알 마시멜 병원 동양의료지원실을 운영하였다.
- 어린이 도서관 보수공사를 위해 잠시 운영을 중단하였다.

7월 13일 일

- 알 마시멜 어린이 도서관 앞 연못을 청소하였다.
- 알 마시멜 병원 동양의료지원실을 운영, 오전에는 여성환자, 오후에는 남성환자를 진료하였다.

7월 14일 월

- 다흐리르 광장에서 열린 이라크혁명45주년을 기념하는 공산당 주최 집회에 참석하였다.
- 오전에 알 후리아 병원 동양의료지원실을 운영하였다.
- 알 마시멜 어린이 도서관 주변 지붕공사, 지붕제작 및 지붕 기초공사를 진행하였다.

7월 15일 화

- 카심, 살람 비자신청을 위해 이라크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였다.
- 미셔너리 어브 채리티 장애인동 시설과 빈민가정을 방문하였다.
- 오후에 알 마시멜 병원 동양의료지원실을 운영하였다.
- 알 마시멜 어린이 도서관 주변 지붕공사를 진행하였다.
- 알 마시멜 어린이 도서관에 설치할 에어컨, 정수기 가격을 조사하였다.
- 바스라에서 최혁팀장과 살람 돌아왔다.

7월 16일 수

- 알 후리아 병원 동양의료진료실을 운영하였다.
- 알 마시멜 어린이 도서관 주변 연못을 정원으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기초작업을 시작하였다.

7월 17일 목

- 알 마시멜 병원 동양의료진료실을 운영하였다.
- 알 마시멜 어린이 도서관 주변 연못에 정원공사를 하였다.

7월 18일 금

- 금요일마다 열리는 올드 바그다드의 큰 책 시장에 들었다.
- 미셔너리 어브 채리티 장애인동 시설 방문, 천주교평화연대 김재복 수사님이 미셔너리 어브 채리티 수녀님이 소개해준 빈민가정에 냉장고와 카펫을 전달하였다.

7월 19일 토

- 알 마시멜 병원 동양의료진료실을 운영하였다.
- 알 마시멜 어린이 도서관 재공사를 진행하였다.

7월 20일 일

- 바스라에서의 전쟁피해조사 및 의료지원 활동을 위해 물품준비를 하였다.
- 보건의료연합 의사, 임종진 기자 바그다드에 도착, 평화팀 숙소를 방문하였다.
- 카심과 살람 비자신청을 위해 이라크 한국대사관에 다녀왔다.
- 알 마시멜 어린이 도서관 정원공사 마쳤다.

7월 21일 월

▶ 활동 일지

- 07:00 철민, 재진, 최혁팀장, 수연, 살람, 인화, 희영, 김재복 수사님, EBS김달해PD 바스라로 출발
- 09:00 휴게실에서 아침식사
- 14:45 바스라 도착, 도착하는 동안 체크 포인트 없음
- 15:00 호텔에 숙소를 정함
- 17:00 점심식사
- 18:20 알 르바트 진료소 방문, 22일과 23일 동양의료지원에 관한 논의를 함
- 19:00 2002년 12월 1일 폭격으로 부상을 입은 아서의 집을 방문
- 20:00 시장에 들름
- 21:00 저녁식사
- 24:00 정전 후 제너레이터를 돌려 전기가 들어옴

7월 22일 화

▶ 활동 일지

- 08:00 아침식사
- 08:30 김재복수사님, 희영, 철민, 살람, 최혁팀장 의료지원을 위해 알 르바트 병원으로 출발
- 09:30 재진, 인화, 수연 전쟁피해조사와 인터뷰를 위해 알 타리미 병원 방문
- 10:00 바스라 알 르바트 병원에서 동양의료지원실 운영(환자 43명)
- 10:20 이라크의 유명한 단편소설작가인 모하메드 쿠다이를 만남
- 13:30 점심식사
- 17:00 바스라 알 르바트 병원에서 동양의료지원실 운영(환자 20명)
- 19:00 바스라 공산당 방문
- 20:30 저녁식사
- 23:00 정전 후 제너레이터를 돌려 전기가 들어옴
- 23:25 사담 후세인의 두 아들이 미군에 의해 모술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축포를 쏘아댐. 총성이 30분간 지속.

7월 23일 수

▶ 활동 일지

- 08:40 동양의료지원을 위해 철민, 재진, 김재복수사님, 최혁팀장, 희영, 살람이 알 르바트 병원으로 감
- 10:00 바스라 공산당 방문
- 10:30 이슬람 당 방문
- 13:30 점심식사
- 17:00 어린이 병원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 봄
- 18:00 알 타노미 병원 방문
- 19:00 샤프 알 아랍 강의 주변 거리와 마을을 돌아 봄
- 19:30 샤프 알 아랍 강에서 작은 배를 탐
- 21:00 저녁식사

7월 24일 목

- 바스라에서 바그다드로 출발하였다.
- 알 마시멜 어린이 도서관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7월 25일 금

□ 알 마시벨 어린이 도서관 앞 정원 공사 마무리 및 화장실 공사를 진행하였다.

7월 26일 토

- 한국에서 있을 행사에서 판매할 기념품을 사기 위해 알 무스탄 시리아 대학 근처의 구리시장에 다녀왔다.
- 이라크 미디어 네트워크를 방문하였다.
- 알 마시벨 어린이 도서관을 위한 화장실 공사를 진행하였다.

7월 28일 월

- 카심, 살람 비자발급을 위해 이라크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였다.
- 지역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7월 29일 화

- 평화팀의 공식적인 활동을 정리하고 암만으로 나갔다. 요르단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카심과 살람도 함께 동행하였다.
- 이동화는 12월까지 개인적으로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활동할 것이며, 김하운은 1개월 전부터 진행한 이라크 미점령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 더 남기로 하였다.

7월 9일 - 8월 6일

□ 임영신, 가이드로서 또 전쟁 직후 긴급구호를 위한 조사를 위해 함께 일해주었던 수아드 압둘카림을 초청해 한달간 한국의 시민운동가들을 만나고 이라크 사람의 눈과 입으로 이라크를 증언하는 평화의 증언 프로그램을 가졌다. 무엇보다 전쟁의 피해자이자 증언자인 나눔의 집 할머니들과 3차례의 만남을 가졌다. 또한 서울, 제주, 광주, 대구, 대전, 지리산, 일산, 분당, 안산 등 10여개 지역, 참여연대, 녹색연합, 나눔의 집, 국제민주연대, 실상사, 향린 교회, 성공회 대학 등 50여개 단체와 조직이 이 일에 함께 했으며 900여 만원이 모금되었고 수아드는 향후 이라크로 돌아가 아이들과 여성들을 위한 작은 NGO를 시작하기로 뜻을 밝혔다.

8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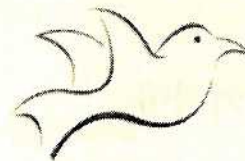
□ 강인화, 오수연, 유은하, 정희영, 최혁 귀국하였다.

8월 10일 일

□ 쌀라과 카심을 초청하였고, 한국에 방문하였다. 8월 23일 이라크반전평화팀 보고회와 문화제에 참여하여 현지 상황과 이라크반전평화팀의 활동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8월 31일까지 머물면서, 한국에서 이라크에 관심을 보내준 데에 인사를 드리며, 한국 민중과 계속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 방문하였다.

8월 중순

□ 구철민, 박기범, 이상래, 전승로 등 귀국하였다.



보고서, 기자회견문, 성명서

이라크 평화팀 활동 기획안

Call for Iraq Peace Team

2월 7일 이라크반전평화팀 출국 기자회견문과 참가자 결의서

2월 23일 1차 임시회의 결과 보고서 (오김숙이)

2월 24일 2차 임시회의 결과 보고서와 지원연대 요청 및 전달사항 (오김숙이)

2월 26일 전체회의 보고서 (오김숙이)

2월 26일 이라크 한국반전평화팀의 캠페인 및 봉사활동 계획서 (박기범)

2월 27일 이라크 입국 기자회견문

3월 6일 전체회의 결과 보고서 (오김숙이)

3월 7일, 8일 활동상황 보고서 (오김숙이)

3월 8일 전체회의 결과 보고서 (오김숙이)

3월 9일 활동 진행상황 보고서 (오김숙이)

3월 11일 은국, 허혜경 귀국 기자회견문

3월 13일 현재 활동상황 보고서 (오김숙이)

3월 14일 활동 보고서 (오김숙이)

3월 15, 16일 활동 보고서 (오김숙이)

3월 19일 현재 활동상황 보고서 (오김숙이)

3월 20일 전쟁에 항의하는 이라크반전평화팀 성명서

3월 21일 상황 보고서 (오김숙이)

3월 22일 한국정부 파병결정 규탄 민주노총 대표단과 이라크반전평화팀 공동 성명서

3월 22일 보고서 (오김숙이)

3월 23일 한국 외교부 규탄 성명서

3월 24일 2차 귀국 기자회견문

3월 25일 보고서 (임영신)

3월 30일 배상헌 팀원의 현지 증언 및 이라크반전평화팀 재입국 추진 선언 기자회견문

3월 30일 전쟁범죄 관련 IPT 보고서

4월 3일 배상헌, 임영신 귀환 기자회견문

4월 3일 배상헌 입장글과 성명서

4월 3일 국적 포기과 관련한 배상헌, 임영신의 입장

4월 3일 노무현대통령께 보내는 항의서한

이라크반전평화팀 이후 계획에 관하여 (4월 6일, 최혁)

농성 결의문 (4월 8일, 오김숙이, 은국, 허혜경, 임영신)

바그다드 리포트 1 (4월 12-14일, 임영신)

"Al Hanan 중증장애인의 집"에 대한 리포트 (4월 20일, 유은하)

바그다드 리포트 2 (4월 20일, 임영신)

바그다드 리포트 3 (4월 24일, 임영신)

한국에 계신 후원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4월 28일, 유은하)

현지 이라크반전평화팀 계획서 - 이라크 민중지원 사업 제안 (4월 30일, 최혁)

현지 보고서 -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5월 5일, 오수연)

알 누르 시각장애인 학교에 대한 보고(5월 15일, 유은하)

성명 - 미국의 이라크 점령 및 식민화 정책에 반대합니다 (유은하)

알 하난 정리에 관한 보고 (6월 16일, 김하운)

현지 활동 보고 (6월 18일)

이라크 전후 한국단체 이라크 구호활동 백서 발간 위한 설문지 (6월 20일)

전후 미점령 실태 조사 보고 (8월 16일, 김하운)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IPT) 활동 계획안

2003년 1월 15일

* 계획안은 변동 가능합니다.

한국 이라크평화팀의 목적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면 어린이들을 포함한 무고한 이라크의 민간인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및 유럽의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전쟁 저지를 위해 현지에서 반전활동을 하는 것을 그 주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난민 구호 사업과 이라크에서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쳐 나간다.

한국 이라크평화팀 구성 경위

한국 이라크평화팀은 이라크 전쟁 위기설이 고조되어가던 2002년 12월 몇몇 평화운동가들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와 이라크 문제의 연관성에 관해 논의하던 중 이라크 전쟁을 막는데 먼저 힘을 보태자는데 동의하고 1월 초 지원자들을 모집하여 구체화하였다.

한국 이라크평화팀의 국제적 협력관계

한국 이라크평화팀은 아직은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경험과 역량 등이 부족함을 감안하여 미국의 Voice in the Wilderness(광야의 목소리)라는 평화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라크평화팀(Iraq Peace Team)의 일원으로 이라크에서 활동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쟁 위기시 전쟁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의 평화운동가들 분쟁지역에 파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비폭력 평화대(International Nonviolent Peaceforce)와도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 이라크평화팀의 활동 계획

1. 주요 활동 내용

1) 전쟁 예방 활동

기준에 이라크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의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전쟁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 활동은 평화운동가들이 이라크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바 이라크까지 무사히 들어가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난민구호활동

가능하다면 한국에서의 모금을 통하여 난민 발생시 난민의 대량 유입이 예상되는 요르단과 이라크 국경지역에서 머물며 UN 및 기타 국제 구호단체들과 함께 난민구호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모금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3) 의료 지원사업

국제사회의 체재로 인하여 기초적인 의약품의 부족으로 이라크에서는 가벼운 질병으로도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가 매우 잦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하여 이라크에 의약품 반입이 가능한지 모색하고 있으나, 만약 여의치 않은 경우 한방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교육과 간단한 도구들을 가지고 가서 한방 의료 지원사업을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팀원 중 한명이 한의대 재학생이고, 또 건강운동 단체에서 간단한 민간 응급요법을 교육받기로 하였음. 또한 만약 의약품 반입이 가능해진다면 보건의료단체에서 의약품 지원을 고려해 보겠다고 소식을 전해음.)

2. 주요 활동 지역

1) 바그다드 인근

이라크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라크 인근을 떠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주요 폭력의 목표지점이 바그다드가 될 것이기에 바그다드와 그 인근지역으로 기본적인 활동 구역을 한정한다. 하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고 또 이라크 정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을 때는 바그다드를 떠나서 다른 도시나 시골지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2) 이라크와 요르단 국경지역

이라크에 출발하기 전 혹은 이라크 가는 도중에 전쟁이 발발하였을 경우 대규모 이라크 전쟁 난민의 유입이 예상되는 이라크와 요르단의 국경지역에 캠프를 설치하여 난민을 수용하고 또 이라크에서 생활하기 위한 자금과 물품들을 난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한 후 한국의 긴급한 모금을 요청한다.

3) 기타 지역

기타 현지의 상황 변동에 따라 필요할 경우 팀을 두 개 이상으로 나눠서 두 개 이상의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3. 소요 예산

1) 전체 소요 예산

1인당 2개월 체류 기준으로 300만원 정도이며 그 외에 의약품 등 지원물품 구입비가 필요하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비(1인)

비행기 티켓(서울-암만) : 150만원(공항세 포함)

암만-이라크 국경(육로 이동시) : 약 10만원(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요르단 국경-바그다드(육로 이동시) : 약 10만원(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체재비(1인)

바그다드 호텔 숙박비(1박) : 10달러(약 12,000원) - 2개월 합계 : 720,000원

식사비(1일) : 3,000-5,000원 - 2개월 합계 : 300,000원

기타 예비비 등 : 280,000원

③ 지원물품 구입비

난민 구호 사업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모금을 진행한다는 전제 하에 지원물품 구입비는 의약품 내지 한방 의료 기구 구입비로 2,000만원을 책정 하였다.

전체 예산 총계는 5,000만원으로 책정하였다.

2) 예산 마련 방안

현재 독지가의 도움으로 1,000만원 가량이 확보된 상황이나 그 이외에는 한국 사회의 모금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최악의 경우 경비의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고 또 여타 의료 활동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럴 경우 이라크에서 두달동안 호텔에서만 머물다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4. 현지 상황

1) UN의 보고서에 의하면 2500만 이라크 인구 중 약 2%인 50여 만명이 전쟁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의약품의 미비로 현지인들이 이미 수십만 명이 죽었으며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화운동가 중에도 질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이미 발생하였다.

2) UN의 제재로 인해 기초적인 의약품과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과 UN의 제재 그리고 후세인의 폭압정치는 이라크 민중들에게 2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의 고통에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 않고 있는 미국과 후세인 정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힘 겨루기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의 이라크 전쟁 위험을 막은 후에는 국제적인 이라크 민주화운동 지지를 조직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3) 이라크 현지에는 한국의 교민들과 대사관이 철수한 상황이어서 만약의 사태 발생시 요르단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이라크 담당 서기관만이 유일한 비상 연락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되 한국 정부는 이라크 전쟁 지원에 나서지 못하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다.

5. 출국 전 준비 사항

- 1) 예방 가능한 질병의 예방 조치(예방주사 등)를 취한 다음 여행자 보험에 필히 가입할 것
- 2) 가족에게는 필히 이라크에 간다는 사실을 알리고 떠날 것 그리고 비상 연락망에는 가족들의 연락처가 꼭 명기되도록 할 것
- 3) 한방 진료를 위한 기초 교육을 모든 참가자들이 받고 갈 것
- 4)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개인 짐을 최소화할 것
- 5) 돈과 여권 등을 따로 소지할 수 있는 복대 등의 안전 장구를 필히 준비할 것
- 6) 이라크 현지에서는 매일 활동 기록을 꼭 작성하여 남길 것
- 7) 이라크 사람들과 종교적 혹은 인종적 이유로 인한 어떠한 분쟁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 8) 종교가 있는 사람은 동료들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기도할 것
- 9) 물이 부족한 국가이므로 물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활을 위한 여행 준비를 할 것

Call for Iraq Peace Team

We are an international team working to prevent an escalation of the current war against Iraq. We oppose any form of armed aggression by any party. We know that a new war against Iraq will take its greatest toll, both immediately and for years to come, on Iraqi civilians: the children, the elderly and the poor. There is no outcome which would justify this further tragedy for the people.

We invite any who wish to act for peace and for the victims of this possible war to consider joining us. Our intention is to form affinity groups, eight to ten persons in each. These groups will prepare themselves at home for working together, both in Iraq and upon return. Each traveler will represent a much broader network of supporters from their own locales.

When and if it appears that war against Iraq is at hand, we will go to Iraq with these intentions:

We will live among the Iraqi people.

We will be with the Iraqi people during any aggression directed at them, including continued economic sanctions.

We will use our presence and non-violent actions to protect, if we can, both the civilian population of Iraq and those facilities (e.g., water purification plants) which make daily life possible for the Iraqi people.

We will use our experiences to speak truthfully, from Iraq and through supporters in the U.S., to all who will listen about the effects of sanctions and war on the people of Iraq.

We as a team do not take the side of any government, none of whom we consider blameless, and all of whom we ask to initiate dialogue and negotiation, especially under the auspices of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s peace-minded people, we deplore all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those inherent in the Security Council sanctions that have been imposed on the Iraqi people for more than eleven years.

We call for the present crisis to be resolved without further violence. To this end, we urge all parties to listen to the advice of Denis Halliday, Hans von Sponeck and others who have immediate experience of Iraq and years of labor for the United Nations. We pledge our continued efforts to rebuild open and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 between the Iraqi people and the rest of the world.

Many of us have spent years working to end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Iraq and have visited those in Iraq most affected by the sanctions. We have seen the grievous and enduring results of the 1991 war and the bombing by the U.S. and the U.K. that has continued since then. We have visited the hospitals and schools in many areas of Iraq. At home, we have done what we can to end the embargo and to advocate the beginnings of disarmament throughout the entire region.

The Iraq Peace Team will be independent from any government or organization. We look for support from other persons who share our convictions and who attach no political considerations to such support.

Individuals are invited to submit applications to Voices in the Wilderness. Total commitment to nonviolent principles and practice is essential for participation in the Iraq Peace Team. Prior experience living in tense and potentially violent situations will be an important consideration. All must be prepared to go to Iraq for an extended stay and to arrange for all their own expenses.

Those accepted for the IPT will receive help in forming affinity groups (based, for example, on past experiences working together, or on a shared faith or shared project).

Prospective participants may choose an extended stay or a short-term stay in Iraq. See our join section.

Iraq Peace Team / Voices in the Wilderness 1460 West Carmen Avenue Chicago, IL 60640

Tel: (773) 784-8065 Fax: (773) 784-8837 | e-mail: info@vitw.org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출국 기자회견

한국 이라크평화팀 출국 기자회견문

순서

1.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출국 기자회견문 발표
2. 참가자 소견 발표
3.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성명 및 계획 발표
4. 질의 응답

첨부

1.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기간 진행경과 및 지원연대
2. 각 단체지지 성명서

일 시 : 2003년 2월 7일(금) 오후 1시 30분

장 소 : 인천국제공항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오늘 우리들,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여 이라크로 출발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다른 이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이라크를 빠져나오려고 애쓰는데, 왜 굳이 전운이 감도는 이라크로 들어가려고 애쓰느냐고. 그러나 우리 역시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이라크로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전쟁 그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 맨몸으로 전쟁을 막고자 우리는 이라크로 출발합니다.

지금 이라크와 중동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대량살상무기 제거-후세인 축출'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이 시간에도 중동 전 지역에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까지 모든 전쟁 준비를 완료한다는 계획 하에, 미국은 전쟁 시나리오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으며, 일명 '충격과 공포 작전'이라 불리는 이라크 조기 초토화 작전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시 미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전쟁을 공언하며 핵무기 사용까지도 승인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시나리오는 비단 전쟁 준비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습에 이은 대대적인 지상전을 통한 후세인 정권의 축출, 미군정 실시, 석유 자원 장악이라는 미국의 치밀한 전전/전후 계획은 미국이 전쟁을 통해 실제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 준비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규모의 사상자와 난민, 그리고 치유할 수 없는 환경재앙이 불가피합니다. 1월 7일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UN 보고서에 따르면, 개전 시 최소 50만명이 사망, 최소 140만명의 국제난민, 200만명의 국내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임산부와 어린이 등 540만명이 긴급구호와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91년의 미국-이라크 전쟁은 앞으로도 200년이 지나야 정화될 끔찍한 환경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폭발된 유전에서 누출된 1백만톤의 원유는 주변 나라들의 식수원과 인근 해안을 오염시키고 기름을 뒤집어 쓴 철새들은 폐죽음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한 미군 자녀들은 선천성 기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지속된 미국의 경제 체제로, 이라크에서는 이미 수십만 명이 기본적인 의약품조차 구입하지 못해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라크 민중들은 극심한 빈곤으로 피난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의 전쟁은 미국의 석유자원 장악을 위한 전쟁일 뿐이며, 수많은 중동/이라크 민중을 몰살하게 될 전쟁일 뿐입니다. 이라크 전쟁은 부시와 전쟁론자들의 안하무인적 처사일 뿐입니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인간은 국익, 안보,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을 자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인간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참혹한 경험의 반복일 뿐이며, 인간의 삶과 가치들, 그리고 그 동안 이룩해놓은 수많은 것들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가장 비참한 행위입니다. 이제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며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면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무고한 이라크의 민간인 피해가 예상되는바,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 평화운동가, 사회운동가, 예비 병역거부자, 환경운동가, 여성운동가, 학생운동가, 청소년, 대학생, 언론인 등은 여러 나라의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전쟁 저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난민 구호 활동과 이라크에서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라크 후세인 정권에 찬성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UN의 제재로 인해 기초적인 의약품과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후세인 정권은 폭압적 정치를 계속해 왔습니다. 미국과 UN의 제재 그리고 후세인의 폭압정치는 이라크 민중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통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는 미국과 후세인 정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힘 겨루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당장 이라크 전쟁을 막는 노력을 할 것이지만 이후 이라크 민주화 역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준비되고 있는 전쟁은 결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전쟁을 비롯한 내정간섭 이상의 행위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라크 문제에 대한 해결은 이라크 민중이 선택할 일입니다.

이제 사람이 사람을 대규모로 살상하는 전쟁이라는 모순을 그만두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방법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오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전쟁 준비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인간의 가치를 지키고 이 세계에 평화를 실현하는 길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이라크 침공을 막고자 하는 우리의 행동은 한반도에 일고 있는 전쟁 위기를 막는 일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이고 패권적인 군사 행동은 이라크와 한반도를 동시에 겨누고 있으며, 이라크 민중의 자결권과 한반도 거주민의 자결권이 마찬가지로 위협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시정권을 비롯한 전쟁옹호론자들의 후안무치한 계획에 대해 결단코 반대하며 다음을 주장합니다.

- ▷ 이라크 전쟁을 당장 중단하라!
- ▷ 이라크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
- ▷ 한국 정부는 이라크 전쟁 파병요청을 거부해야 하며 국제적 반전운동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2003년 2월 7일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Iraq Peace Team of Korea

(강은지, 김민혜정, 남효주, 성혜란, 손성희, 오김숙이, 은국, 이영화, 임종진, 전승로, 최재훈, 한상진, 허혜경)

결 의 서

남호주

이번 일의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은 1월 셋째주쯤 이다.
 이는 교수님께서 (반전)평화 운동을 하시러 이라크에 가신다는 얘길 듣고 연락을 했다.
 그리고 여러 번의 메일교신과 회의에 참가한 뒤 나는 이번 일에 참여하기로 했다.
 어머니도 같이 이번 일에 참여하시게 되었다.
 그런데 출발하기로 한 일주일전쯤 현지상황에 변수가 생겨
 나를 보내지 않겠다는 연락을 취해왔다. 그 이유는 ITP측에서 메일이 왔는데
 미사일이 빈번히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가는 것에 대해 심히 생각을 하고 혹시나 내가 어머니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닐까, 어머니가
 가지 않는다고 해도 과연 같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다는 대답을 던져 주었다.
 내가 그곳에 가서 하는 일은 KIIP의 활동과 현지의 상황 그리고 다른 ITP들과의 연대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한국에서 많은 정보로써 활용되는 것.

친구들에게 “나 중동간다 -- 이라크 전쟁 막으러” 라는 말을 하였을 때,
 “니가 거길 왜가냐?”는 말과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나에게 주었다.
 그렇다. 나는 평화운동가도 아니고, 방송국의 종군 기자도 아니며,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학생도 아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안간다면...”이라는 전제가 없었던 것 같다.
 지금 위험하다는 적색경보의 메일이 날라오고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언론보도와
 이라크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올려져 있다.
 난 유서를 쓰지 않았다. 꼭 살아돌아오리란 마음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록하는 것들이 잘 쓰일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내가 촬영하는 것들이 꼭 촬영의 의미뿐 아니라 반전(평화)운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평화운동가도, 종군기자도 아닌 10대의 청소년으로써
 반전(평화) 운동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결 의 서

성혜란

오늘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다. 만난 김에 이라크에 간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전쟁터에 왜 가느냐는 것이 공통된 반응이었지만, 내가 그 물음에 대해서 속 시원히 대답을 해 준 것은 없다.

처음 이라크에 ‘인간방패’들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 때 들었던 그 잠깐의 이야기가 한 동안 내내 내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그 곳에서 무언가 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물론 개인적인 욕심이 컸다. 그 내용들을, 그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그런 욕심 말이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세계 곳곳에서 모인다는 인간 방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보고 그 마음은 더욱 확실해졌다. 9.11테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평화 운동가들, 평범한 사람들. 그들은 전쟁을 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쟁을 막기 위한 행동을 벌이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담고, 알림으로써 전쟁에 반대하는 나의 행동을 만들어 가고 나의 의지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험하고, 어쩌면 죽음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만, 주위에도 적어도 가족에게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엄연한 사실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곳에 가지 않고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전쟁을 바라본다면 더 큰 후회가 남을 지도 모른다. 아니, 아예 몰랐다면 모를까, 전쟁을 막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는데, 내가 할 일을 찾았는데 가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후회할 것이다.
 조금 겁이 나고, 잘 해 낼 수 있을까 염려도 되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일단 한 번 결심한 것, 최선을 다할 뿐이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이라크인들에 대한 짤막한 글을 읽은 기억이 난다. 이라크 민중들은 자신들을 대추야자에 비유한다고 한다. 뿌리 내린 곳에서 물줄기를 찾지 못하면, 그 물줄기를 찾아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대추야자에 자신들을 비유하는 국민들.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힘의 논리에, 경제적 이익에 의해서 죽음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에서 끈질기게 생존해 나가는 사람들이었다. 이전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그런 비극을 만들어 내는 상황에 분노해야 할 일이었다.
 여전히, 각국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얼마의 피해를 보고 또는 얼마의 이익을 얻을 것인지 발 빠르게 계산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라크 석유 매장량이 얼마이고, 얼마의 화폐가치를 가지던, 그것은 이라크에서 살고 있는, 또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일 게다. 수천, 수억의 돈뭉치가 그곳에서 살고 있는 단 한 사람의 목숨보다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라크로 가고 있다.

내가 그곳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이렇게 내가 그곳에 가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학생신문 성혜란

이라크 반전평화팀 참가를 결심하며

오김숙이

이라크 반전평화팀 이야기를 접한 후 며칠 동안 불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최종시간으로 정한 마지막 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깨어나서 '그래 여권을 만들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현상을 마주하면서 언제나 가슴 한켠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민족이라는 틀로, 국가라는 틀로, 여성/남성이라는 틀로 구분지으면서 우리의 상상력과 행동을 가두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한 본질주의적 기준으로 나와 나를 가르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결국 폭력을 행사하는 구분들. 최근 촛불시위를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민족주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한계들을 깨고 우리의 상상력과 행동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까 고민해왔습니다.

이라크 반전평화팀 이야기가 저를 두드리며 가만두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입니다. 강자, 강대국이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저질러온 폭력과 살인행위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를 가두고 길들여온 그 '덧'들을 깨고자 합니다. 그 덧들은 바로 민족이고, 국가이고, 여성/남성, 동성애자/이성애자이고, 그것이 민족의 자존심으로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슴없이 폭력을 휘두르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권리를 짓밟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자유와 평등과 평화에 대한 열망은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성주의자로서의 저의 신념이고, 지금 이라크 반전평화팀으로 참가하도록 저의 내면을 울린 목소리의 근원입니다.

저의 결심과 행동에 대해 격려해주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열망해온 많은 이들과 다양한 형태로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03년 2월 6일 여성해방연대 오김숙이

내 목숨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은국(경희대학교 한의대, 사회당 당원, 예비 병역 거부자)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공격은 이제 확실시 되고 있다. 이라크에서 반전운동을 하고 있던 전 세계의 많은 반전운동가들도 더 이상 전쟁을 막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바그다드를 빠져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라크에 간다는 것은 어쩌면 자살 행위일 지도 모른다. 사람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까. 그것은 분명 불가능하다. 미사일은 내 몸을 불사르고 목표 지점으로 돌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라크의 주요 관공서, 군사 지역, 대규모 공장들과 수많은 이라크 민중들을 불사를 것이다.

이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이라크에 끝없이 퍼부어질 미사일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 부시가 말하는 '테러와의 전쟁' 이고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전쟁인가. 난 사실 부시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나는 만족스런 얼굴로 콜라를 마시며 소나기처럼 이라크에 퍼부어지는 미사일을 TV로 감상하면서 이 겨울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나는 부시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은 석유를 위한 전쟁이고 미국 자본주의 구조의 필연적인 결론임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은 지금 넘쳐나는 군무기를 배설시켜야 하며 이라크로부터의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마치 배가 불러 터지고 살이 더욱더욱 찌꺼주체를 못하지만 끝없이 젖을 쳐 먹어야 하는 거대한 비만아를 보는 듯하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이윤추구' 라는 단 한가지의 존재 이유만 가진 저능아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이게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세계가 이런 저능아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이 전쟁을 방관한다면, 이 전쟁을 지원한다면 이미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것이다.

나는 한국의 수많은 '전쟁반대' '평화실현'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라크로 떠날 것이다. 그 곳에서의 나의 활동들은 결코 한 개인의 삶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이고 우리 모두의 실천이 될 것이다.

나는 잘 알고 있다.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내 한 목숨을 바쳐서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나 혼자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말이다. 진정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싸우는 한국의 수많은 동지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23살, 아직 젊은 나이이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수많은 꿈을 꾸는 내 자신이지만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나의 전 존재를 바꾸어도 결코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목숨이 이 보다 더 가치있게 쓰일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것이다. 나는 모든 억압에 저항하고 만인의 평등한 자유를 꿈꾸고 있다. 그리고 이 꿈은 결코 공상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진정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나 자신의 신념과 한국의 수많은 동지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03. 2. 6 은국

결 의 서

전승로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연일 방송되고 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라크를 가기로 결정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전쟁은 그저 전쟁을 통한 미국의 한풀이식 대응방법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것은 결코 해결이 아닌, 새로운 폭력과 더불어 죄 없는 민중만을 희생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유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며, 대체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하나? 인류평화를 위협하는 군비경쟁체제를 확대하며 이를 통해 군수산업에 게 시장을 제공해주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까지도 엿보이는 이번 전쟁은 결국 또다른 걸프전일 뿐인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전쟁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되어서는 아니되는 행위다. 현대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이라크로 직접 가는 것이다. 조금이나마 이것이 전쟁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면,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이라크로 가기까지

한상진

하나, 이년 전 미국의 평화운동가 데이빗 핫소씨가 한국에 와서, "평화운동가는 평화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했을 때 한없는 감동을 받았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에 왜 그렇게 감동을 받았었는지...

둘, "분쟁지역에 평화운동가들을 대규모로 파견하여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비폭력 평화대가 작년 11월 말에 창립되었다. 그리고 그보다 두달 쯤 전에 이 단체의 한국측 네트워크인 한국 비폭력 평화연대가 만들어졌고, 내가 창립멤버로서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셋, 9.11 유가족들의 평화운동단체인 평화로운 미래(Peaceful Tomorrow) 회원들이 이라크에서의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이라크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은 충격이었다. 이라크에 들어가야겠다는 결심과 함께 미국 AFSC(친우봉사회)의 조셉 거슨에게 메일을 보냈다. "이라크에 들어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겠는가?" 몇일 후 답신이 왔다. "그들은 이라크에서 이미 철수하였다. 아직도 연락처가 필요하다면 다시 연락주기 바란다."

넷, 어느 술자리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으려면 이라크에서부터 전쟁을 막아야만 한다. 내 비록 보수주의자지만, 한국의 평화운동가들이 이라크에 들어간다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던 어느 재미교포 의사선생.

(그는 결국 돈을 한푼도 내놓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처음 일을 추진하면서 돈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게 해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 지금 고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섯, 뭔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덜컥 먼저 일을 저지르고 보는 내 성격.

여섯, 예상치 못했던 주위 사람들의 지지와 참여.

그리고

위에 열거한, 그리고 또 열거하지 않은 더 많은 일들, 이 일들 중 하나만 어긋났어도 이라크 평화팀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시계 부품들로 이루어진 별이 있다면 그 별에서 부품들이 저절로 뭉쳐서 하나의 시계를 만들어낼 확률이 얼마나 될까?

지극히 우연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의 조합이 때로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닌 필연이다.

걱정 어린 목소리로 “전쟁터엔 왜 갈려고 하느냐?”던 어머니께 너무나 무심하게 “일하러 가요.”했던 내 대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

평화운동가들의 일터는 당연히 분쟁이 있는 곳이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 평화운동가들 아닌가?

“무섭지 않느냐?”고 간혹 물어온다. 지금도 잊을만 하면 미사일이 날아오고 폭격을 당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나라에 가기도 전에……

피식 웃음이 난다. “그래 나도 무섭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자칭 평화운동가들 에게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은 없다.”라고 대답한다.

“안가면 안되겠느냐”고 눈물짓는 주위 분들에게 “축하해 달라”고 너스레를 떠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긴장은 된다!!

이라크 출국을 앞두고

허혜경

91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연일 TV를 통해 더듬거리는 동시통역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CNN뉴스를 시청했었지요. 캄캄한 바그다드의 하늘에 크고 작은 초록색 불빛이 번쩍이며 터지던 광경은 그 가공할 규모만큼 여전히 저의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물론 그 때는 잘 몰랐습니다. 마치 전자오락처럼 현란하게만 보였던 전쟁게임 뒤로 무고하게 살상되는 수십만 이라크 민중들과 파괴되는 그들의 삶의 터전과 꿈꾸기조차 어려운 그들의 막막한 미래를.

그로부터 10년 넘게 미국은 이라크를 잔인하고 집요하게 폭격해왔으며 경제 제재의 치명적인 영향으로 이라크에는 기본적인 의약품조차도 구할 수 없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걸프전 이후 폭격과 경제 제재로 인해 50만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다 망가져 버린 이라크 땅에서 미국은 또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공격이 시작되면 병원의 전기가 끊기고 상하수도 시설이 파괴돼 바그다드와 기타 지역의 주민 수백만 명은 물도 마실 수 없게 될 것이며 거리는 몇 시간만에 오염된 물로 넘쳐날 것이라고 합니다. 신문에서 확인한 바로는 지하 깊숙이 숨어 있는 병커를 파괴하기 위해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라크 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가 방사능의 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알 카에다와의 연계니, 대량 살상무기니 핑계를 대며 이 미친 짓을 멈추지 않는 미국의 속셈이 바로 미국내 석유 자원이 몇십년 안에 바닥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중동 지역의 석유,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이라크를 점령해서 미국의 대리 정권을 세우고 중동의 전체의 지도를 미국의 지휘하에 다시 그림으로써 그 지역의 석유 자원을 미국 손아귀에 넣고 자국이 천년만년 세계 자본주의의 정점에 위치하겠다는 극악무도한 제국주의의 야욕 말입니다. 사실 이 정도는 신문이나 미국관련 서적을 조금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문제는 이 전쟁의 광풍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입니다.

출국을 몇일 앞둔 지금도 여전히 제가 왜 이라크에 가야하는지, 나에게 반전과 평화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멋지게 표현할 능력도 부족하고 아직 자신도 없습니다.

다만, 걸프전 이후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격 그리고 잔인한 경제 제재로 인해 아무런 죄도 없는 아이들과 여성들이 아주 손쉽게 고칠 수 있는 병에 걸려도 의약품이 없어서 대량으로 죽어가고 20세기 초쯤에나 유행했을 질병이 만연한 이라크의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제국주의의 야욕 때문에 매달 수만명이 질병과 기아로 죽어나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집 근처에 떨어지는 폭탄을 맞고 흔하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강한 자괴감을 느끼게 합니다.

미국은 전쟁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대량학살'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맑스가 그랬을 겁니다. "인간의 일로서 나와 관계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싶습니다. 9.11 테러 유족회 사람들 중 50여명이 이미 이라크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 'Not in our Names'(우리 이름 팔아서 전쟁하지 마라)라는 슬로건을 걸고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큰 마음의 울림을 느낍니다. '인간방패'라는 말이 너무 자극적이고, 또 그 자체로 군사주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에 가능한 한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쨌든 비인간적인 제국주의 전쟁을 막아내기 위한 세계 민중들의 저항이 머나먼 중동의 땅을 비롯한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또한 나약하고 삶에 대한 집착을 순순히 비우지 못한 사람인지라 떠날 때가 다가오니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면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별탈 없이 돌아와 다시 이 땅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살아갈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 믿고 있지만 사람의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고 단출한 태도를 갖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좌파로서의 제 삶에 대한 성찰도 이라크행을 결심하게 된 소박한 계기였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국면에 맞서 저의 맨몸과 의지를 걸고 저항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운동을 결의했을 때의 마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이 빛 바래고 가슴에 뜨거움 하나 없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사막같은 상태를 타개하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위협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밤새 몸을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기도 하지만 세계의 반전평화운동가들과의 충만한 연대를 생각하면 한편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이 많이 위험해져서 이라크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다시 속속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 한국팀이 함께 활동하게 될 "Iraq Peace Team"은 개전 이후 철수한다는 것이 공식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고 급진적인 반전주의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고 개전이 된다면 주요 폭격 예상 시설에 분산해서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대단해 보이는 이러한 결의도 조금만 고쳐 생각하면 바로 이라크 민중들이 10여년 이상 겪어야 했던 것과 동일한 위험일 뿐입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은 너무나 흔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나라 밖의 일에 대해선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구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커서 그런가요. 한국은 불과 반세기 전 전쟁의 경험과 기억이 있고, 여전히 분단 국가로서 한반도가 세계 4대 전쟁 위험지역 중 하나인데도 이 나라에서는 반전이니 평화니 하는 운동이 아직 시민권조차 획득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미국이 아시아의 약소국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패망한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자국 군대를 비롯한 전세계적인 반전 운동의 물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도시들을 파괴하고 그 지역 수백만 민중들을 폭격으로 죽인 다음 중동을 지배한다고 해서 미국이 세계 자본주의의 영원한 패권국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전 평화 운동이 확산될수록 제국주의 전쟁의 추악함은 오직 증오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이라크 평화팀 활동이 촉매가 되어 한국에서도 반전 평화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반전 평화는 전쟁 지역만의 일이 아니라 반자본주의 좌파 운동이 바로 지금 시급히 조직해야 할 일이며 앞으로 더욱 놓지 말아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몸 건강히 돌아오겠습니다.

2003년 2월 6일 허혜경

■ 2월 23일 1차 임시회의 결과 보고서 (오김숙이)

23일 진행한 1차 임시회의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시급히 우리 팀 활동 전반에 대한 상이 잡혀야 하기에, 이라크에서 2명의 팀원이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도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회의>이며, 추후 2명이 이라크에서 돌아오는 대로 정식 회의를 통해 우리 팀 활동에 대한 상을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팀의 활동계획 등을 발표(공개)하는 것도 정식 회의 이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논의가 정리 되는데로 다시 공식 입장을 담은 문서를 보내겠습니다.

발신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수신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제목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제1차 임시회의 결과보고
일시 : 2003. 2. 23(일) 오후 8시
참가자 : 9명(은국, 성혜란, 전승로, 오김숙이, 박기범, 이윤벽, 최혁, 임종진, 김력균)

<논의 및 결정 사항>

1. 한국 지원연대의 요청사항(2. 23일자 문서)에 대한 논의 건

- 지원연대에서 발송한 요청서를 공람하고 반전평화팀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에 바탕한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한 지원연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모두 공감하였으며 우리 팀 또한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 우리 반전평화팀의 구성과 활동은 23일 새벽에 4진이 요르단에 입국하여 합류함으로써 본래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준비와 판단의 미비함, 공식성을 갖는 단일한 활동양상을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연대와 동일하게 판단하며, 그에 대한 대안은 이전 활동에 대한 평가가 아닌 팀의 체계와 운영원칙, 활동계획에 대한 빠른 결정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우리는 오늘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되, 2명의 팀원이 이라크에 있는 상황에서 임시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팀 전반에 대한 방침을 확정하는 것은 25일 이라크에서 2명이 돌아와 합류한 직후가 될 것이다.
- 2명의 귀국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되, 그것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팀의 상과 운영원칙이 불분명했던 팀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유하였다. 그리고 귀국에 대한 공개 등의 처리는 지원연대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2. 반전평화팀 체계 및 활동 전반에 대한 논의 건

<1> 임시체계 구성

공식적 성격을 갖추기 위해 빠르게 팀 체계와 의사결정방식 등 운영원칙을 확정해야 한다고 봄. 이라크의 2명이

합류할 때까지 임시체계를 두기로 함. 이후에는 공동대표의 형태가 좋겠다는 판단을 전제하고, 현재 필요한 체계로서 임시대표(지원연대와의 소통역할 포함) 오김숙이로, 재정담당 은국을 결정함.

<2> 반전평화팀의 성격

- 1) 이라크전쟁과 관련한 일회적 성격의 한시적 기구로 국한하지 않으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쟁지역에서의 평화활동을 수행하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네트워크로서 만들어간다.
- 2) 처음 미국 IPT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모색되었으나 그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 반전평화팀으로서의 독자적 활동에 역점을 두고 독자적 정체성을 형성해감으로써 한국 반전운동의 성과를 축적해가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IPT 등과 사전 소통과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활동계획

- 1) 최대한 이라크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활동을 우선적으로 전개하되, 시기별로 전개할 활동을 나누어보면 개전 이전, 전쟁 시기, 전쟁 이후, 귀국 후의 네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팀 활동의 상은 다음의 다섯 가지 활동 영역으로 설정하고 전개한다.

① 반전캠페인

- 집회, 1인 시위, 고공 시위 등 전쟁을 막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기획한다.
- 이후 구체적인 기획과 함께 필요한 시위 물품을 지원연대에 요청한다.
- 대사관 등의 협조를 통해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을 알아본다.

② 현지봉사활동

- 전쟁 고아, 핵무기·방사능에 의한 피해 민간인 방문과 봉사활동
- 방사능에 오염된 현지 일반인들의 피해 상태 및 규모 파악
- 이라크 민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림 전시회, 이라크 여성들에게 보내는 엽서 전시 등

③ 외국단체와의 연대

- 이라크 현지에서 활동하는 외국단체들과 간담회, 연대행동 등을 모색
- 한반도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④ 국내와의 연계

- 한국 내 여론 형성을 위해 팀의 활동소식, 이라크의 실상을 수시로 전달한다.
- 한국의 이라크전 파병금지를 위해 국회에 이라크전 파병금지안 상정 등을 위해 노력한다.
- 국내에서 반전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⑤ 개전시 난민구호활동

- 요르단 국경지역에 설치될 난민캠프에서의 활동을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한다.
- 팔레스타인 난민활동 등을 고려할 때 의류, 방한복, 담요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교계, 인권단체 등을 통한 한국 내 지원사업을 제안한다.

- 국내 보건의료단체 등을 통해 의료지원단에 대한 준비를 모색한다.
- 난민캠프의 현황 파악과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2) 반전평화팀 규모와 추후 지원자 문제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한국 내의 광범위한 지원활동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반전평화팀에 직접 참가하는 사람들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양한 활동영역에 대한 우리팀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더욱 많은 지원자들이 지속적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4> 팀 활동의 기본 원칙

- 우리 팀은 모든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수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단 우리 팀은 이라크에서 2명이 돌아온 후 이라크에 들어가며, 우리 팀의 구체적인 철수시점과 계획은 추후 상황에 따라 확정하여 진행한다.

<5> 기타 사항

- 1) 반전활동과 구호활동에 대한 준비에 즉시 착수한다. 이를 위해 대사관, 교민 등 현지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통채널을 확보한다.
- 2) 현재의 지원연대 이외에 한국 내 지원활동, 반전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직접적인 접촉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 3) 이라크에 있는 2명의 팀원과도 가능한 한 빨리 우리의 논의내용을 소통하도록 한다.

■ 2월 24일 2차 임시의회의 결과 보고서와 지원연대 요청 및 전달사항 (오김숙이)

발신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수신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날짜 : 2월 25일 (화)

제목 : 2/24 반전평화팀 제2차 임시의회의 (밤 8시)

<보고 사항>

- 어제 회의 결과보고 정리내용 공유
- 비자신청 관련 상황 : 한상진씨는 인적사항 없어 보류
- 허혜경씨 부친의 전화 : 귀국 안하고 요르단 팀원들이 이라크에 들어가 합류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 우리의 활동에 대한 언론보도에 주의하자.
- 유엔 결의안에 따라 개전 일정 등 변화될 가능성을 염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준비사항 조절해야 -> 정세 및 전쟁 관련 브리핑 필요

<논의 사항>

1. 활동 계획 준비를 위한 임시 역할분담

<1> 뉴스 브리핑

- 별도의 중요한 영역으로 준비 : 인터넷, CNN, 한국 내 보도물 입수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에 맞는 우리팀의 대처방안도 늦춰지지 않도록 하자.
- 팀원에서 담당자를 정해 다양한 루트를 찾고, 한국 지원연대에 매일 간략한 뉴스브리핑을 요청하자
- 담당자 : 최승로(영어되고 인터넷 익숙), 한국 지원연대 요청은 오김숙이

<2> 대사관, 한인회 연계와 지원 채널 확보 : 이윤벽, 난민캠프 참가방안 모색 및 기획 : 임종진

<3> 집회 및 현지 봉사활동 기획

-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하느냐를 결정한 후, 필요물품 등을 정리해 한국과 이곳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담당자를 정해 추진
- 은국, 박기범 씨가 담당

<4> 국내 단체와의 연계

- 직접 접촉하여 지원 요청하는 계획 작성, 오김숙이 담당

<5> 팀활동 기획서 초안 작성

- 구체적 형태가 갖춰지는 상황이므로 이에 맞게 대외적인 홍보 및 기타 활동을 위해 23일 회의 결과보고를 토대로 지금까지 토론된 사안들을 문서화로 정리하여 25일 전체회의에서 초안으로 토론하자 (최혁 담당)

<6> 내일 일정 및 기타 논의 사항

- 관광비자 관련 실무 : 우리 팀에 대한 영문 소개서, 한상진씨 인적사항 (오김숙이 담당)
- 한인회 전회장에 의하면 교민수가 워낙 적어 소품을 구하기 어렵다고 함. 안되면 피켓 등을 직접 제작.
- 다섯 개 사업에 대한 적임자를 선정했으나, 담당자들이 가능한 기획안을 제출하고, 내일 합류할 2명을 통해 이라크 상황을 공유한 후 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추진한다.
- 외국인인 위한 인권모임 정기순 회장을 통해 청와대에 보낸 메일 : 2-3일 내 우리 활동에 대한 반응이 올 것으로 예상.
- 내일 회의에서 대변인을 두어 우리 활동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응하자. 국내 가족 등이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성명서 등을 추진하자.
- 난민구조활동으로 전환한 후 우리의 활동시한은 그 때의 상황에서 정해야 한다.

<7> 내일 회의

- 이라크에서 아침 6시 출발, 4시 요르단 도착 예정이므로 저녁식사 후 8시쯤 진행하자
- 주요안건 : 이라크 현지 활동에 대한 보고 및 현지상황 공유 / 우리 팀 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 확정

<2/24 지원연대 요청 및 전달사항>

1. 요청 물품들

<1> 팀 조끼, 팩 제작 요청

- 날씨 등으로 가져온 파란티를 밖으로 입을 수 없음(지금 눈 10센치 쌓임)
- 등판에 크게 구호, 앞에는 팀이름이 쓰인 조끼 보낼 줄 것 요청
- 현재 15개 필요 (MBC 2명, 출국예상자 2명 포함)
- 요르단과 현지에서 나누어줄 팩 다수 추가로 필요

<2> 반전캠페인을 위한 물품 (집회 및 현지에서의 전시회를 위한 필요한)

- 추후 가능한 한 빨리 한국에서 가져와야 할 물품을 요청하겠으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음
- 어린이를 위한 전시회, 여성에게 보내는 엽서 전시회 등의 사업은 겨레아동문학연구회(주로 전교조 선생님들이 회원)와 '동화읽는 어른 모임'(주로 어머니들) 등과 연계하여 대중적인 형태로 준비했으면 함.

<3> 그밖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물품, 식료품 등은 오늘 밤 안으로 정리하여 보낼 것임.

한국에서 곧 출국한 사람들 편에 가져올 수 있도록

2. 한국 타 단체와의 연대 확대를 위해

- 박기범씨가 소속한 겨레아동문학연구회 상황실에 지원연대 결합 요청
- 외국인을 위한 인권모임 정기순 회장을 통한 정계(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 연결)에 대한 작업
- 반전평화팀에서도 가능한 단체 등에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중임.

3. 매일 간략한 뉴스 브리핑 요청

■ 2월 26일 전체회의 보고서 (오김숙이)

발신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수신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제목 : 2월 26일 전체회의 결과보고
참가자 : 11명 전원

<논의 안건 및 결정사항>

1. 이라크 입국문제 확정 건

- 한상진을 제외하고는 IPT 비자 발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므로, 빠르게 우리 팀의 활동을 진척시킬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우리가 요르단에서 겪은 혼란을 반복하지 않고 이라크에서 현지와의 연락, 난민구조활동 준비, 한국과의 연계를 담당하도록 요르단에 팀원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그러나 그러한 일을 위해 이라크에서 전화나 인터넷(여행사, 대사관)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하므로 현재 요르단에 있는 팀원들은 입국한다.
- 두 팀(A, B)으로 나누어 관광비자를 신청한다. MBC기자들의 일정을 고려한 <A팀>은 3월 5일 이라크에서 출국하여 요르단으로 나온다. <B팀>은 최대 14일까지 이라크에 머물 수 있으며, 일단 10일간의 기간으로 비자를 신청한다. <B팀>이 이라크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지난 회의에서 정한 '기본 원칙'에 준해 결정한다.
- <A팀> 허혜경, 전승로, 오김숙이, MBC기자 2명, ITV기자
- <B팀> 최혁, 박기범, 은국, 성혜란, 임종진(한겨레)
- <기타> 한상진 (IPT 비자)
- 2월 27일 밤 이라크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됨. 팀원들의 짐은 현 숙소에 맡기기로 함.

2. 팀 체계 및 활동계획 확정 건

<1> 우리 팀 활동의 상 (체계, 성격, 활동계획, 기본원칙)

- 공식체계를 결정함. 공동대표로 한상진과 오김숙이를, 대변인으로 최혁과 박기범을, 그리고 각각의 활동에 대한 역할분담을 함(계정담당 전승로, 집회 및 행사기획 은국과 박기범, 대외협력 허혜경, 이윤벽 등). 그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임시회의에서 결정한 활동계획대로 확정함.
- 단 '활동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한상진씨는 한국의 반전운동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하나 이라크에서의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자신은 한국 팀원이자 미국 IPT 회원으로 활동하려고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상진씨의 이러한 입장을 존중하기로 함.

<2> 의사결정 및 공개문제

- 팀 전체의 진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팀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팀 활동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세부 활동계획

① 현지 집회 및 행사 관련 <별첨 참조>

- 이라크 현지에서의 평화활동가들의 숙소가 밀집되어 있고, 매일의 일정이 공지된다. 그 중 IPT의 경우 반전집회, 거리행진, 학교와 가정 등 방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Human Shield는 주요 도로와 건물에서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우리 팀은 반전캠페인과 행사를 위한 준비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이라크에 입국한 첫번째 주는 평화활동가들의 스케줄을 파악하고 그들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그리고 그 후 지원연대에 요청한 물품이 들어오는 시점부터는 자체 집회와 행사를 벌이고 다른 평화활동가들의 동참하도록 한다.

② 이라크 입국 전 기자회견

- 이라크 입국에 앞서 요르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팀 체계 및 활동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성명서를 발표한다.
- 2/27(목) 낮시간에 진행하며, 장소는 한국대사관을 섭외한다.

<기타 사항>

1. 한국에서의 추가 지원자와 관련하여

- 27일 이라크로 팀원 전원이 출발하며 3월 5일 A팀이 다시 요르단으로 나오므로, 그 기간 사이에 한국에서 추가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팀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 힘들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람.
- 다음에 추가로 요르단에 들어오는 지원자 편에 지금 지원연대에 요청하는 물품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2. 요청 물품목록

- 1) 이미 요청한 물품 : 조끼, 팩
- 2) 식료품 (이라크 숙소에서도 조리 가능하므로, 다량 요청함)
 - 김치,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참기름, 라면, 다시다 (쌀은 현지조달 가능하므로 제외)
- 3) 집회와 행사를 위한 세부물품 : <별첨자료> 참조

3. 몇가지 또 기타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시보'에 우리 소식 보내줄 것. 그리고 대변 신부 연락처(메일, 전화번호) 알아봐서 보내 주시길.
- 요르단 국경지역에 설치될 난민캠프를 준비하는 모임에 참가신청을 하기로 함. 3월 5일 이라크에서 돌아오는 팀이 준비할 것임. 그 모임에서 정식으로 참가할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난민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국내에서의 지원도 대규모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곳의 활동시기도 연장되어야 함.
- 의약품을 이라크 현지 병원에 전달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일단 우리가 가져온 약품을 전달하기로 하고 그것이 수월하다면 국내 지원 요청하겠음.

■ 2월 26일 이라크 한국반전평화팀의 캠페인 및 봉사활동 계획서 (박기범)

<이라크 한국반전평화팀의 캠페인 및 봉사활동 계획>

작성자 : 박기범

1. 바그다드에서 되돌아온 두 분이 들려준 현지 사정

바그다드에서 돌아온 두 분의 말씀에 따르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자유롭지 못하다. 일단 관광비자 형식으로 이라크에 들어가게 되면 비밀요원 한 명과 가이드 한 명, 택시 기사 한 명이 따라다니게 된다. 관광비자는 당국의 관광 패키지 일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며 이라크 인들과 만나 정치적인 이야기는 거의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상황이 유동적인 것은 어떤 요원, 어떤 가이드를 만나는데 달려 있다. 이번에 들어갔던 두 분은 관광비자로 들어갔지만 그나마 좋은 가이드와 요원을 만나 나름껏 자유로운 활동을 했다고 한다. 지나가다가 집회가 있으면 저기에 한 번 가봐도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게다가 나중에는 알 카심이라는 사람과 친해졌고, 알 카심이 후세인에 대한 욕을 할 정도로 공감을 가졌다고 한다. (실제 이라크에서는 후세인 욕을 했다가는 바로 잡혀가는 상황이다. 일 년에 처형이 1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어쨌든 관광비자를 통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척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고, 어떤 가이드, 어떤 정부 담당자가 따라붙느냐에 따라 유동성이 움직인다. (오히려 일본의 피플 피쓰라는 팀은 그 비자를 가지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담당자를 만나 한상진, 허혜경씨보다 운신의 폭이 작았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이라크 안에서는 어떤 평화활동단체도 미리 계획을 세우거나 스케줄을 뽑지 못하고 있다. 그날 그날 아침에 각 호텔 게시판마다 일정을 붙여 놓으면 각국의 평화활동가들이 그것을 살펴보고 결합하는 식이라고 한다.

애초 우리는 첫째 주에는 그 안에서 계획된 일정에 최대한 맞추며 이라크 현지 사정을 파악했으면 했다. 해서 국제 평화단체들의 스케줄 현황을 뽑아야 어느 정도 우리 일정을 잡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들었듯이 그것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 호텔의 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보며 그 일정에 맞추어 보는 것....

가정방문 같은 것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 방문 또한 그렇다고 한다. 우리는 최대한 가이드와 정부 담당자에게 **을 써서라도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IPT 비자가 있는 한상진 씨를 통해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우리 정도의 인원이면 나름대로 독자 집회를 열 수도 있겠다고 한다. 허혜경씨 말에 따르면 일본에서 온 팀은 복이나 기타 같은 악기를 가져와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 여기에 애초 우리 팀의 계획에 있었던 풍물 - 사물 악기를 이용한 집회, 행진 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 이 부분은 빠르게 신부님이 교민들을 알아보아서 악기를 구해야 하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본국에 조달을 요청해야 한다.

2. 사업계획

어제 회의에서 우리가 캠페인 준비로 이야기한 것.

이 모든 활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것 뿐 아니라 우리 한국 민중들은 한반도의 전쟁에도 반대한다는 것을 동시에 알려야 한다는 것>

<1> 피켓과 플랭카드 문구 공모

- 이것은 현재 한국에 남아 있는 이들에게 참여의 장을 여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팀의 활동이 국내에서 반전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받아안고 간다는 차원에서 피켓이나 플랭카드에 들어갈 문구를 제안받자고 했다. 각 단위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해 이 계획을 알리고 리플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반전평화 여론에 대한 동기 유발 및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것.
- 또 하나 오늘 아침 인터넷으로 받은 의견 가운데 하나는 각급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플랭카드를 이후 요르단으로 오는 팀에 보내어주는 것.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의미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필요한 물품 : 매직, 두꺼운 종이, 막대기, 청테이프, 페인트, 신나, 붓, 천, 색상지, 크레파스, 물감.

<2> 우리가 이 안에서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전시물.

손도장이나 발도장으로 어떤 상징이나 문구를 만든다 (종이, 투명한 테이프, 물감)

<3> 계획할 수 있는 집회 활동 형식

- 피케팅, 구호, 풍물 공연(풍물 악기), 고공 시위(등산용 로프), 대사관이나 기관 앞에서 인간 사슬 유키(머리 띠 제작 - 피씨 천을 이용)
- * 또 하나 허혜경 씨가 제안한 것으로 각급 평화팀에 동시다발 자국 대사관 향의 시위를하자는 것. (영문 제안서 작성)
- *이 때 통일된 복장을 위해 이후 본국의 조달을 요청할 수 있다. 마크나 문구가 들어간 조끼(그 전까지는 파란색 티셔츠 입고 활동)

<4> 학교나 교아원/병원/가정 방문 시 우리가 계획해 본 것들

- (바그다드에서 돌아온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시설 방문이나 가정 방문이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단 어렵다고 본다.)
- 뱃지 나누어 주기 (국내에서 뱃지 지원)
- 시설이나 가정, 마을(빈민촌) 청소하기
- 축구공 선물하고 함께 축구하기 (축구공)
- 아이들이나 장애인들 목욕시켜주는 봉사
- 아이들 얼굴에 물감으로 그림 그려주기 (포스터, 물감, 붓)
- 단체 줄넘기(등산용 로프), 과자 따먹기(과자, 사탕, 밀가루, 실), 딱지 치기(), 아이들 입고 이어달리기 (반환점 제작), 제기차기(제기, 관들기)

3. 그밖에 한국의 활동과 연계하여 받아야 할 것들

<1> 사진모아 보내기-이라크 현지 전시

오늘 아침 제안 받은 것으로 비록 이곳에는 열명 남짓 되는 한국인이 와 있지만, 본국의 더많은 한국 민중들이

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현.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모아보내는 것이나 다른 활동의 결과물을 받는 것은 시간이나 여건상 여의치 않지만 그에 견주어 사진을 모으는 일은 가능해 보인다. 이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단지 이곳의 열세 명이 아니라 그 사진속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의지가 상징적으로 잘 드러날 수 있을 거라 예상된다.)

이를 태면 이라크 현지에서 어느 건물이나 시설 하나를 거점으로 삼아, 적어도 그것만은 한국 평화팀이 지킨다는 의지를 보이며, 그 건물의 외벽을 한국인들의 사진으로 도배할 수 있다면 의미있는 상징이 될 수 있겠다. (이 안을 팀장님과 의논하였고, 팀에서 받아 안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일단 빠르게 본국 지원연대에 이 내용을 알려야 하고, 본국의 지원 연대에서 각급 단위, 단체로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지금은 무엇을 하든 시간이 많지 않다. 적어도 4진이 들어오는 때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거나, 혹은 1진 A팀이 일주일 뒤 다시 요르단 안만으로 나왔을 때 받아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 시간이 넉넉치 않다.)

<2> 한국의 어린이들이 이라크 어린이에게 내 옷 한 가지, 내가 아끼는 인형 하나 보내어 주기운동

이것이 가능하다면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물론 아이들 시설 방문이나 가정 방문에 뜻있게 쓰일 수 있겠지만, 전쟁이 나고 그 뒤 난민이 끊임없이 속출하게 된 뒤에도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운동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해 내는 것이 좋겠으며, 1차로 수집된 것들은 현지 이라크반전평화팀의 방문, 봉사 활동 연계할 수 있겠다. 이 또한 지원연대를 거점으로 하여 한국 내에서 조직하고 홍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3>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 어린이, 노약자

현재 여성해방연대에서 이라크 여성에게 엮서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좀 더 대중적으로 벌일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이 또한 지원연대의 차원에서 각급 모임이나 단체로 제안해 내어 이어내는 것이 좋겠다. 이 활동의 결과물이 현지에서 팀의 활동으로 어떻게 이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뚜렷이 잡히지 않지만, 본국에서 그러한 활동을 벌이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물론 그 밖의 더욱 다양한 방식의 여러 가지 운동이 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각기의 방식으로 의식을 높이며 여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4> 각급 단위에서 플랭카드를 제작해서 보내주기

한국에 있는 다양한 민중이 자신의 목소리로 이라크 민중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 이를테면 여성의 입장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 내기도 할 것이며, 어린이 관련 단체에서 이라크 어린이와 동무가 되는 목소리를 담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플랭카드가 마련된다면 시내 곳곳에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며 행진이나 집회를 할 때에도 쓰임이 많을 것이다.

<5> 그밖에

팩(많은수록), 사물 악기(요르단에서 구하지 못할 경우), 구호물자(의약품, 옷, 담요)

**현재 내일 이라크로 떠나기로 예정한 상태에서 팀원 몇 사람이 이 곳에서 준비할 수 있는 간단한 집회물품을 구입하려 나갔습니다.

■ 2월 27일 이라크 입국 기자회견문

이라크 입국 기자회견문

한국 반전평화팀 11명은 평화와 인간애의 이름으로 이라크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 오늘 저녁, 이라크 국경을 넘을 것이다.

이제는 많은 이들이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벌이려는 전쟁은 이제껏 미국이 대중선동용으로 떠들어왔던 '테러와의 전쟁'도 아니며, 독재 정권 하의 이라크를 민주화시킨다는 그럴듯한 명분과도 거리가 멀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 땅에 묻힌 엄청난 양의 석유를 독점하기 위한 추악한 전면전이며, 에너지 자원을 좌지우지함으로써 세계 자본주의의 유일무이한 패권국으로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야욕일 뿐이다.

이러한 부당하고 오만한 전쟁이 초래할 결과는 실로 처참할 것이다. 이미 걸프전 이후 미국의 지속적인 폭격과 경제 제재로 인해 이라크의 기간산업은 정상적인 구실을 하지 못할 정도로 파괴되었으며 5세 이하의 어린이 50만명 이상이 사망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기초의약품의 절대 부족으로 20세기 초에나 유행했을 질병이 창궐하고 있으며, 더더욱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이라크 민중들이 이미 절망을 깊이 내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과 용기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라크 민중들을 향해 또다시 미국이 전쟁을 감행한다면 이것은 분명컨대 인간에 대한 대량 학살이며 평화와 인간애를 지향하는 전세계 모든 민중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듯 한 가닥의 명분도 없는 이라크 전쟁을 우리는 먼 자국 땅에서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사랑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더 낫다는 실로 당연한 이상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 자리에 모인 11명은 평화운동가에서부터, 사회주의자, 여성운동가, 학생, 신부님, 동화작가, 기자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우리들은 바로 우리와 같이 사랑과 평화를 염원하는 전세계의 반전,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이라크 민중들과의 뜨거운 연대, 의지로 이 오만한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라크로 향한다.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통해 근대적 이성의

처참한 파괴를 목도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사랑과 평화의 마음이 전쟁의 문법으로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절대로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활동은 국내의 반전, 평화운동이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큰 전기가 될 것이며, 또한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위기가 점증하는 한반도에서의 파국적 전쟁을 막는 길이라 믿는다. 현재 한국에서도 반전과 평화의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반전 평화의 열기로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 정부의 파병 시도를 저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가 시급히 확립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몇 십여년의 역사를 가진 서구의 반전운동과는 달리 이제 한국에서는 반전, 평화운동이 겨우 형태를 갖추어나가기 시작했다. 오늘의 이러한 시도는 한번의 참여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11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반전평화팀이 평화와 인류애에 대한 신념을 지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로서, 앞으로는 팔레스타인 등 전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학살에 적극 개입하여 평화의 이상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대규모로 살상하는 전쟁을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전쟁과 군대, 군사주의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평화적인 세계를 만드는 길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2003년 2월 27일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일동

(김력균, 박기범, 성혜란, 오김숙이, 은국, 이윤벽, 임종진, 전승로, 최혁, 허혜경, 한상진)

별첨 1. 한국 반전평화팀 이라크 현지 활동 계획

한국 이라크 반전 평화팀 (IRAQ PEACE TEAM OF KOREA)

활동 계획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구성 배경

▷ 미국 부시 행정부와 영국 블레어 정권이 준비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은 테러 방지, 화학무기 등 대량 인명 살상 무기 확산 저지, 이라크 민주화 등의 표면적 이유들과 전혀 상관없이 이라크에 매장된 석유 자원을 노리는 부당한 전쟁이다.

▷ 이라크에서 부당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어린이들을 비롯한 수백만 이라크 민중이 무고하게 살상되는 참극이 빚어질 것이며, 그 결과로 이어지는 테러 보복과 응징이라는 악순환으로 세계는 야만의 시대로 치닫게 될 것이다.

▷ 미국 부시 행정부와 영국 블레어 정권이 획책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의 추악한 본질을 규탄하는 반전운동이 여러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부당한 이라크 전쟁을 저지하기 위한 반전평화운동가들의 이라크 행이 이어지고 있다.

▷ 이라크 전쟁은 한국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한국인과 전혀 상관없는 이민족의 비극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포함한 수백만에 이르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인류애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 또한 부당한 이라크 전쟁은 미국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다음은 북한"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듯이 한반도 민중의 삶과 전혀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라크 전쟁은 한반도에서도 언제든지 부당하고 비참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따라서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은 한

반도에서의 전쟁을 저지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열망하는 한국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부당한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 운동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활동을 넘어서 이라크 현지에서 반전 평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국 이라크 반전 평화팀을 구성하였다.

□ 한국 이라크 반전 평화팀 활동 기초

▷ 각계각층 인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한국 최초의 반전 평화팀으로써 향후 한국 사회에서 반전 평화 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한국 이라크 반전 평화팀이라는 독자성을 유지하며 활동한다.

▷ 임박한 이라크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 부시 행정부와 영국 블레어 정권이 주도하는 전쟁 책동을 고발하고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반전 평화 캠페인을 이라크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한국 이라크 반전 평화팀으로써 임박한 이라크 전쟁을 저지하는 반전 평화 활동뿐만 아니라 최근 북핵 문제 등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서도 부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 부당한 이라크 전쟁을 저지하기 위한 이라크 현지에서의 반전 평화 활동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한국 이라크 반전 평화팀 성원들의 생명과 안전이 소중함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이라크 현지에서의 반전 평화 활동 과정에서 아무런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한국 이라크 반전 평화팀 체계

▷ 한국 이라크 반전 평화팀의 대외적 공식성을 확보하고 이라크 현지 등에서의 반전 평화 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표 및 집행 체계를 구성한다.

▷ 한국 이라크 반전 평화팀의 진로 및 사업 등 중요한 사안에 관한 의사는 반전 평화팀 구성원

모두가 참가하는 회의(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진다.

▷ 한국 이라크 반전 평화팀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 등을 고려하여 반전 평화팀의 주요 회의 결과와 활동 내용 등을 신속히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 한국 이라크 반전 평화팀 체계와 구성원

- 공동대표 : 오김숙이, 한상진
- 이윤벽, 허혜경, 박기범, 임종진, 성혜란, 은국, 전승로, 김역균, 최혁

□ 향후 활동 계획

부당한 이라크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이라크 현지에서의 반전 평화 활동을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 사업 영역으로 나누어서 전개한다. 시기별 활동 계획은 추후 상황의 진전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 반전 평화 캠페인

- 집회, 1인 시위, 고공 시위 등 다양한 반전 평화 행동을 실행한다.
- 이후 구체적인 기획과 함께 필요한 시위 물품을 지원연대에 요청한다.
- 대사관 등의 협조를 통해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을 알아본다.

▷ 현지 봉사 활동

- 전쟁 고아, 핵무기방사능에 의한 피해 민간인 방문과 봉사 활동
- 방사능에 오염된 현지 일반인들의 피해 상태 및 규모 파악
- 이라크 민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림 전시회, 이라크 여성들에게 보내는 엽서 전시 등

▷ 외국 반전 평화 단체와의 연대 활동

- 이라크 현지에서 활동하는 외국단체들과 간담회, 연대행동 등을 모색
- 한반도 전쟁 방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 국내와의 연계

- 한국 내 여론 형성을 위해 팀의 활동소식, 이라크의 실상을 수시로 전달한다.
- 한국 정부의 이라크전 파병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전개한다.

- 국내에서 반전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 난민 구호 활동 준비

- 요르단 국경지역에 설치될 난민캠프에서의 활동을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
- 팔레스타인 난민활동 등을 고려할 때 의류, 방한복, 담요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교계, 인권단체 등을 통한 한국 내 지원사업을 제안한다.
- 국내 보건의료단체 등을 통해 의료 지원단에 대한 준비를 모색한다.
- 난민 캠프의 현황 파악과 국내의 NGO 단체들과 접촉한다.

■ 3월 6일 전체회의 결과 보고서 (오김숙이)

<보고사항>

- 휴먼셀즈 미팅 참석 : 휴먼셀즈 비자를 기다리는 30여명 참석. 어제 바그다드로 부터 휴먼셀즈비자 발급 불가능 해졌다고 통보받음. 휴먼셀즈를 가장한 스파이, 기자에 대한 이라크 당국의 경계가 원인이라고 확인됨. 요르단에 서 대기하고 있는 휴먼셀즈 일부는 요르단내 활동을 고민 중이며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활동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음.

<논의사항>

1. 향후 계획 논의 건

- 이라크에서 보낸 6일의 경험과 현지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 우리 팀은 앞으로 이라크현지활동/국내여론확산/요르단캠프 운영 활동을 전개한다.

- (1) 이라크현지활동 : 이라크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상진 정재원과 앞으로 이라크로 들어가는 팀원들이 현지에서 반전평화를 위한 가장 직접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 (2) 국내여론확산 : 국내의 반전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활동으로 우리 팀의 활동에 대한 소식들을 보내는 것, 그리고 학교일정 등으로 한국에 돌아가는 팀원들이 지원연대에 결합하여 강연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 (3) 요르단캠프 운영 : 난민구호활동을 위한 통로를 만들고 한국과 연결하여 난민구호활동을 준비하는 것, 이라크 현지활동에 대한 지원, 이라크 입국을 위한 방안 모색과 준비 등의 역할을 맡는 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2.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일지에 대한 문제

- 현재 팀의 공식 활동일지를 박기범팀원이 작성하고 있음. 오마이뉴스에 실린 일지 내용에 대해 다른 팀원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일지 등을 국내언론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모두 공유하며, 좀 더 공식성을 띠는 활동일지로서 작성하기로 함.

- 지원연대에 요청할 사항 : 신문 등에 팀원들의 일지가 게재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 마치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그것을 따로 취재한 것처럼 내보내거나, 우리 팀원들을 마치 자기 방송사의 취재원처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봄. 우리 팀에서 매체에 어떻게 실리는지 알 수는 없으나, 예를 들면 뉴시스(newsis-여성해방연대 게시판에서 봄), ds(최혁 인터뷰 당시 취재원이 되어버리도록 멘트 요구)에서 우리 팀을 다루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봄. 일단 뉴시스의 보도방식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고 대응해주시기 바람.

■ 3월 7, 8일 활동상황 보고서 (오김숙이)

1. 이라크 한상진 공동대표 현황

- 3/7 오전에 전화음.
- IPT도 자체적으로 사람들의 분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응급처치 비상대책을 교양하는 등 비상상황으로 돌입하고 있다고 함. 207호로 방울김
- 러시아유학생 정재원씨가 3/6 찾아와 만났다고 함.

2. 3/7 요르단 활동 현황

- 3/7 4진으로 온 팀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현지 적응을 위해 함께 발라드시장에 가 환전 등을 하고, 휴먼셀즈 요르단 사무실에서 간단한 만남을 갖음
- 오리엔테이션에서는 1) 이라크전쟁을 둘러싼 정세브리핑 2) 우리팀의 이라크 현지활동 브리핑 3) 휴먼셀즈와 IPT의 활동상황 브리핑 3) 우리 팀의 활동경과와 상황 브리핑 4) 요르단 생활을 위해 기초회화, 화폐 등을 교양함
- 매일 저녁 9시에 열리는 전체회의 대신, 4진 환영식과 신부님과 김력균피디 환송식을 진행함 (새벽 2시, 3시 비행기로 요르단 출국함)

3. 3/8 요르단 현재 상황

- 휴먼셀즈를 방문했다가 만난 일본인 활동가의 도움으로 그들을 통한 이라크비자 신청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임.
- 학교일정으로 다음 주 정도에 귀국할 2명(허혜경, 은국)의 귀국일지는 잡히지 않은 상태임.

■ 3월 8일 전체회의 결과보고 (오김숙이)

<보고사항>

- 한국 지원연대 상황 보고
- 이라크 현지 통화내용(한상진팀장) : IPT는 식량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준비 중임. 또한 몇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한 휴먼실즈 지도부 5명 추방당함. 이라크 당국의 추방 조치에 반발한 휴먼실즈 이라크를 떠나기도 함. 러시아유학생 정재원씨 도 3월 9일경 요르단으로 나올 것이라고 함.
- 일본 시민조사단 비자 : 팀원 중 11명이 신청한 상태이며 2~3일내로 이라크 국제친우회 책임자인 알 하쉬미가 답변을 주기로 함.

<논의사항>

이라크 2차 입국에 관한 건

- 임종진 팀원이 회사측의 협조로 최혁 팀원과 추진한 방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진행됨. 이라크정부측 정치관리를 통한 비자로, 5명이 한팀으로 움직여 전쟁발발전에 나오는 것으로 계획된 비자로, 현재 이라크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는 그나마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임.
- 그러나 5명을 선발하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팀의 합의없이 불투명하게 진행되었고 그것이 신속하게 이라크에서 상징적인 반전행동을 할 수 있는 팀워크를 우선시해서 판단했다는 것, 이라크를 갔다는 유경험자여야 한다는 점 등이 4진을 배제한 것으로 오히려 팀워크를 깨뜨리는 과정이었다는 점이 제기되었음. 또한 지금 시기에 이라크에 들어간다고 할 때 보장될 수 있는 안전은 아주 낮은 수준이기에 무엇보다도 이라크에 들어간다고 할때 모든 것을 감수한다는 각오를 밝힌 팀원으로 구성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한 비판.
-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그 방안을 추진한 제안자가 인정하였으며, 그 방안을 백지화하겠다고 정리함.

격렬한 논의로 이라크 2차 입국과 관련한 논의를 다음날 오전 11시에 연속하기로 함.

- 오김숙이 공동대표 사임의사를 표명함

■ 3월 9일 활동 진행상황 보고서 (오김숙이)

- 이라크 입국 및 다른 일정으로 오전 회의는 저녁으로 옮겨짐.

1. 반전행동을 위한 이라크 2차 입국 확정

- 임종진 기자가 추진한 방안이 유효하다는 것을 아침에 접한 후, 그 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전쟁임박 시기에 이라크 현지에서의 퍼포먼스, 전시, 집회 등 반전행동을 전개하는 팀을 결정함.
- 선발 기준은, 지속적으로 이라크 입국의사를 밝혔고 이라크에 입국했다가 동시에 빠져나오는 것에 동의하는 팀원으로 반전행동을 위해 필수적인 팀원들로 정하고 추천하는 것으로 함.
- 최병수, 최혁, 임영신, 박기범, 성혜란을 확정함. (이중 최소 3명까지 입국할 수 있음)
- 3월 10일, 11일 경에는 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

2. IPT를 통한 이라크 입국 방법 모색

- 이미 IPT활동을 결정하고 자원한 유은하(한상진)팀원을 통해 이라크 입국을 희망하나 위의 5명에 포함되지 않은 팀원들의 이라크 입국을 모색하기로 함. 이 비자는 팀별 비자가 아니라 개별로 나오는 비자임.
- 이라크 대사관을 통해 최병수 팀원의 작품, 사진 등을 직접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으나 유은하를 제외한 팀원의 비자발급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음.
- 지원자 : 유은하, 배상현, 이해종, 주재일, 박기범, 성혜란 (뒤의 두사람은 위의 비자에서 제외될 경우 대비)

3. 기타 팀원의 계획

- 허혜경, 은국 : 한국 귀국 준비
- 오김숙이, 전승로 : 당분간 암만캠프 운영

4. 난민구호활동 모색

- 다음주 화요일(3/11) 오후 1시 UNDP에서 있을 난민지원을 위한 NGO 모임에 요르단 교포 김목사님과 함께 참가할 예정임.
- 현재 분과별(의료, 물자 등등) 모임이 진행중이라고 하며 상황에 대한 자료를 김목사의 도움으로 파악하기로 함.
- 요청사항 : 1) 현재 한국에서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이라크 난민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 줄 것.(한비아의 월드캠프 등등) 2) 우리가 가능한 난민지원의 분야와 규모에 대해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음 이에 대한 지원연대의 일차적 판단바람.

추신>

좀 전에 관련 회의가 있다고 해서 해마다가 회의일정이 다음주라는 정보만 얻고 돌아오는 길... 거 참... 암튼 해볼 수 있는데 까지 해봐야지...

이라크에 다녀와서 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4진이 결함하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암튼 아침에는 어제밤의 분위기에서 많이 바뀌어 서로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마음을 맞추려는 움직임^^ 수고!

■ 3월 11일 은국, 허혜경 귀국 기자회견문

은국, 허혜경 귀국 기자회견문

지난 2월 17일, 평화와 인간애에 대한 소박한 신념으로 부당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막고, 이라크 민중들과 연대하기 위해 바그다드로 향했던 한국 반전평화팀 일원 은국과 허혜경은 오늘 한달여간 암만과 바그다드 현지에서 펼쳤던 전쟁 억제 활동을 마치고 한국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전 열기의 확산에 일조하기 위해 귀국한다.

현재 이라크를 둘러싼 정세는 말그대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며 아무도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측은 이미 UN 승인 없이도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한 바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공격 날짜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바그다드 현지에 있는 반전평화팀원 두 명을 비롯한 각국의 평화운동가들의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간 방패 비자로 입국한 대다수 평화운동가들은 발전소, 정수시설, 식량저장고 등 이라크 당국이 지정한 5개의 주요 기간산업시설에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3일 여 전부터 행동의 자유 또한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밖에도 결정적 국면에서 평화운동가들이 인질이 될 가능성, 생화학전의 위험, 폭격보다 더 위협한 내전과 폭동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5일 일단 바그다드를 빠져나와 암만에 집결한 반전평화팀은 앞으로 세 가지 정도의 활동 방향을 결정했다. 일부는 수일 내에 다시 바그다드로 진입, 임박한 전쟁에 대해 숫자는 미미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각국의 평화운동가들과 전쟁을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만약 전쟁이 발발할 경우 야만적인 전쟁이 불러일으킬 참상에 대한 진실한 목격자이자 증인이 될 것이다. 또한 일부는 암만에서 이라크-요르단 국경 사이에 차려질 난민 캠프 설치의 계획부터 실행의 과정까지 참여하게 되며, 다른 일부는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여 확산되고 있는 한국 반전 운동의 열기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 한국으로 들어가는 은국과 허혜경은 이라크 현지에서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간담회와 글쓰기 등을 통해 반전 열기를 확산시키고 최근 전쟁 위기가 고조되지 않는 한반도에서 부당하고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2월 7일 출국한 세 명을 시작으로 해서 3월 7일 암만으로 입국한 6명을 포함, 현재 현지에는 이미 단일 국가로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16명의 반전평화팀원들이 단 한 줄의 명분도 만들어낼 수 없는

오만하고 제국주의 침략 전쟁 반대를 위해 모여 있으며 지원자가 계속 늘고 있다.

한국에서 해외의 전쟁이나 분쟁 지역에 이렇듯 조직적으로 개입한 적은 이번이 최초이다. 따라서 한국 반전평화팀은 준비기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이라크 입국 비자 취득부터 난민 구호 활동의 기획까지 우리는 경험의 부족과 한계를 실감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을 떠날 때부터 밝혔듯 이번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활동은 국내의 반전, 평화 운동이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큰 전기가 될 것이며, 처음 발뺌했던 우리의 한계와 성과는 더 깊고 폭넓은 반전 평화 운동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도 이라크 현지, 요르단, 한국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3년 3월 11일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일동

■ 3월 13일 현재 활동상황 보고 (오김숙이)

수신 :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
발신 :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공동대표 오김숙이
제목 : 3월 13일 현재 활동상황 보고
날짜 : 3월 13일 낮 12시(요르단 현지시각)

<보고 사항>

1. 이라크 2차 입국팀 상황

- 7월 17일 개전, 15일 유엔사찰단 등 철수완료 일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모두 15일 밤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 요르단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함.

1) 이라크 2차 입국 1팀

- 3월 11일 새벽 4시 출발, 12일 오후 바그다드 도착함
- 숙소는 팔레스틴 호텔 30호, 31호이며 지난번 입국때 가이드를 하며 많은 도움을 준 카심을 만남. 국제친우회 알 하쉬미를 만나 우리 팀의 활동 등을 설명하고 요르단에서 비자를 기다리는 한국팀의 비자 발급을 요청함. 그러나 공동비자가 아닌 개별비자는 현재 어려운 상태라는 답변.
- 또한 이라크 정부 조직(무엇인진 자세히 모름, 요르단 한국대사관에서 알려준 소식임)와 간담회를 하고 미국의 폭력성에 의한 이라크 전쟁임박 상황, 위협받고 있는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유감을 전하고 전쟁반대의 의지를 전함.
- 3월 13일 집중 공급지역인 이라크 남부 바스라지역을 돌며 피해상황을 돌아보고, 14일 바그다드로 다시 들어갈 것임.

2) 이라크 2차 입국 2팀

- 3월 12일 저녁 8시 출발
- 박기범, 성혜란, 이해종, 정재원 (한국 기자 1명)
- 바그다드로 도착, 지난번 입국때 큰 도움을 준 카심을 가이드로 만나 3일간의 일정을 수행하고 돌아올 예정임. 바그다드 해방광장, 울드바그다드 등에서 4진을 통해 한국에서 준비한 현수막, 사진및 엽서 전시 등을 하며 이라크전쟁 반대캠페인을 두차례정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1차 입국때 두차례 방문한 장애아동시설을 다시 방문하는 비쁜 일정을 계획하고 있음.
- 입국 1팀이 14일에 바스라에서 바그다드로 돌아오면 함께 행사 진행.

2. 이라크 입국 개별 - 장기비자 추진 상황

- 유은하 팀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성과가 보임. 조금 전 11시경 전화에 의하면 개별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 신청자들이 여권을 들고 대사관으로 달려간 상태임.
- 비자발급이 완료되면 출발시간을 바로 결정하여 입국할 예정임.
- 배상현, 유은하, 주재일 팀원이 신청한 상태이며 각각은 다른 활동을 계획하고 있음. 배상현과 유은하 팀원은 비자가 나오는데로 입국할 예정이며, 주재일 팀원은 요르단에서 난민지원을 위한 준비활동하며 이라크 입국은 유

보함.

* 배상현 : 이라크 입국 후 휴먼실즈 활동이 가장 근본적인 비폭력 직접행동 이라는 신념으로 이라크에 장기체류할 계획임

* 유은하 : 이라크에 입국 후 IPT에 결함, 체류 기간은 추후에 확정할 계획임.

3. 난민지원활동 모색 상황

- 요르단에 있는 오김숙이, 전승로, 유은하, 주재일이 담당하여 모색하기로 함.

1)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책임자 등 접촉

- 우리 팀의 활동의지를 전하고 난민지원활동 승인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현재 요르단에 있는 ngo등이 많아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음. 더욱 구체적인 실무 부분에 대한 타진을 위한 UNHCR 실무 책임자와의 만남(3/15)을 우선해 줌.

2) 3/13 공동 난민지원 모색을 위한 요르단 교민들과의 1차 만남

- 난민지원의 뜻을 가진 요르단 교민 세 분과 간담회를 하고,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역할분담을 하고 유엔과 요르단 당국을 접촉, 방법을 모색하기로 함.

- 요르단 교민 세분은 모두 선교사로 이전부터 난민지원활동을 모색해왔으며, 종교적 색채를 떨 생각이 없다는 의견을 전해왔고 서로 힘을 모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요르단과 한국을 연계하며 난민지원활동 준비 필요성에 공감함.

- 오김숙이, 전승로, 주재일, 유은하, 요르단 교민 3명 참가하였으며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난민지원활동 지역에 대한 판단

시리아, 이란, 쿠웨이트, 터키, 요르단으로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시리아는 30만 난민 유입이 예상되나 한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상태, 이란으로 70만명의 난민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이 쿠르드족, 쿠웨이트는 미군의 진입으로 적은 수의 난민 예상, 요르단의 경우 국가에서 난민허용을 제한하고 있고 유엔은 사막 등의 이유로 적은 수의 난민유입을 예상하나 바그다드 등 집중폭격지역의 난민이 차량 등을 이용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 곳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요르단에서의 난민지원활동이 유의미하다는 의견 모음.

(2) 난민지원활동 방식에 대한 논의

- 첫째는 난민지원을 총괄하는 UNHCR을 통해 NGO로서 정식승인을 받아 참가하는 방식, 둘째는 정식승인을 받아 난민지원활동을 하는 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활동하는 방식을 찾을 수 있음.

- 전자의 방식은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며 후자의 방식이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는 더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그러나 두가지 방식을 동시에 알아보고 추진하여 가능성을 높이기로 하고 그를 위해 역할을 나눔.

(3) 2차 모임

- 3/14 (금) 오후 6시 아미라 숙소

- 한국내 난민지원 참가규모와 항목 가능성 타진, ngo등록요건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한 정보 파악 등을 확인하고 추후 계획을 논의하기로 함.

4. 기타

- 요르단 숙소 연락은 아미르 APT 23호로 할 것 (이전에 사용한 다른 방들은 빈 상태)

- 한국내 난민지원 참가규모와 지원 항목(물품,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 현재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내일 오전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함.

■ 3월 14일 활동 보고서 (오김숙이)

수신 :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
발신 :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공동대표 오김숙이
제목 : 3월 14일 활동상황
날짜 : 3월 14일 낮 12시(요르단 현지시각)

1. 이라크 현지 활동

- 14일 2차 입국 1, 2팀과 어제 밤 9시에 IPT비자를 받고 장기계획으로 암만을 출발한 팀원들이 모두 바그다드에 서 합류하게 됨.
- 2차 입국1팀은 13일 바스라를 돌아보고 오늘 바그다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전쟁이 미뤄질 거라고 판단하며 이라크에 더 머무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함. 최종 판단은 내일하게 됨.
- 2차 입국2팀은 13일 해방광장에서 한국 각 단체에서 보낸 현수막 6개를 걸고, 지난 1차 입국때 이라크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건 현수막을 보수함. 오늘은 아이들과 '피스'를 외쳤던 올드바그다드에서 한국에서 보낸 사진과 엽서를 전시하는 반전캠페인을 벌일 예정임.
- 어제 밤 출발한 3인(유은하, 배상현, 주재일)은 도착하자마자 입국2팀과 합류한 후, 각자 장기적으로 활동할 IPT와 휴먼쉴즈를 접촉하고 상황을 파악하기로 함.

2. 요르단 활동 상황

- 현재 오김숙이, 전승로가 머물고 있으며 난민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함께 일을 추진했던 유은하, 주재일의 이라크 입국으로 요르단 선교사 교민들과의 소통 등이 밀접하지 않으며 진행 또한 느려진 상태이며, 오늘 저녁 예정되었던 난민지원을 위한 요르단 교민과의 2차 모임도 연기될 예정임.
- 어제 보고서에서 얘기한 요르단 교민들의 ngo등록을 통한 방식보다는, 우리 팀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결합할 수 있는 국제난민지원단체를 모색하고 있음. 현재 알아본 곳 중에 관심있게 보는 곳은 Savethechildren이라는 단체로 아이들과 여성을 주요대상으로 한 난민지원단체이고 미국 영국 노르웨이에 지부를 두고 있음.
(더욱 자세한 것은 www.savethechildren.org에 접속해볼 것)

*추신 : 이라크에 2차 입국한 팀들이 17일 전쟁이 미뤄질 거라는 낙관적 기대를 갖고 있으나 아직 침략 당사자인 미국의 입장이 불변하는 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봄. 전쟁 후에도 남겠다는 계획에서가 아니라 전쟁이 미뤄질 것 같아 이라크 출국을 미루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전할 것이지만, 2차 입국한 팀원들이 출발전에 합의했던 15일 밤 이라크 출국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우려스러운 상황임.

■ 3월 15, 16일 활동 보고서 (오김숙이)

수신 :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
발신 :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공동대표 오김숙이
제목 : 3월 15, 16일 활동상황 보고
날짜 : 3월 16일 낮 12시(요르단 현지시각)

1. 이라크 현지활동 상황

- 이라크 2차 입국1팀 : 최병수님은 바그다드 숙소에서 머물며 걸개그림을 걸기 위한 준비를 함. 나머지는 이라크 북부 쪽을 돌고 15일 저녁에 바그다드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음.
- 이라크 2차 입국2팀 : 바그다드 내에서 고아원 등 방문활동을 함. 밤에 1팀과 합류하여 이라크에서 나오는 시기를 결정하려 하였으나 1팀내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2팀 자체적으로 17일 밤 바그다드를 출발하는 것으로 결정함.
- 유은하, 주재일은 IPT에 합류하기로 하여 한상진팀장과 함께 움직일 예정임.
- 배상현은 입국 1, 2팀이 바그다드를 떠난 후에는 휴먼쉴즈로 결합하기로 함.
- 16일에는 대형걸개그림 걸기, 17일에는 세계활동가들과 함께 하는 촛불시위를 입국 1, 2팀 등 바그다드에 있는 팀원들이 함께 전개할 계획임.

2. 요르단 활동 상황

- 15일 요르단 암만에서의 반전집회 참가 : 요르단 정당들, 팔레스타인인, 요르단에 머물고 있는 휴먼쉴즈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유엔 건물까지 행진함. 한국팀은 오김숙이, 전승로가 한국에서 보낸 아이들의 그림을 들고 참석, 많은 호응을 받음.
- 난민지원방법 모색 : 별다른 진전없는 상태임. ngo등록과 관련하여 UNHCR과의 만남은 무산되었고 요르단 당국으로 알아보는 방법을 권유받았으며, 파트너십을 형성할 단체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응답이 없는 상태임.
- 요르단 입국자 마중 : 15일 새벽 민족문학작가회의 오수연씨, 15일 저녁 민주노총 파견자분들을 맞음. 오수연씨는 우리 숙소, 민주노총은 다른 호텔로 감. 내일 새벽 요르단에 입국할 사람 마중나갈 예정.
- 민주노총 파견자 3인과의 만남 : 16일 오전 우리 팀 숙소에서 만나 서로의 활동에 대한 계획 등을 이야기하고, 민주노총의 이라크 비자 추진 상황에 대해 조언과 의견을 나눔.

3. 기타

- 어제 한국에서 온 네명과 중앙일보 기자가 함께 관광비자 추진중. 민주노총 IPT 비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함.
- 난민지원과 관련, 파트너십을 형성할 국제단체를 파악하는 일을 지원연대에서도 알아볼 것을 요청함.

■ 3월 19일 현재 활동상황 보고서 (오김숙이)

수신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발신 :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날짜 : 3월 20일 새벽 1시 30분 (요르단 현지시각)
제목 : 현재 활동상황 보고

1. 이라크 현지 상황

- 배상현 팀원이 북바그다드 파워플랜트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세시간 전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요르단 암만에 도착한 한겨레 임종진 기자의 말에 따름). 배상현 팀원은 17일 요르단 암만으로 출발한 9명의 팀원들과 헤어진 후 휴먼쉴즈가 있는 5개의 비군사시설 사이트 중 파워플랜트에 들어가 하루를 보낸 후 애초의 생각과 다르다는 판단 하에 짐을 싸 나온 상황에서 임종진 기자가 만났다고 함. 이후 IPT의 한상진, 유은하씨가 있는 숙소로 간 것으로 추정하나 이라크와의 전화연결이 안되어 확인하지 못함.
- 배상현 팀원이 소속된 경남파산열린회방명대에서 너무 위험한 상황이므로 즉시 이라크에서 나오라는 조직적 요구를 한상진 공동대표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이라크와 전화연결을 계속 시도하나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여서 이라크에 있는 팀원들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2. 요르단캠프 활동 상황

1) 요르단 팀원들의 이후 거취

- 18일 밤 전체회의에서 팀원들의 이후 거취에 대한 의사를 확인함. 귀국 예정자(오김숙이, 전승로, 최병수, 이해종, 정재원)와 요르단 활동 지속 팀원(박기범, 임영신, 이창용, 최혁, 주재일, 성혜란)으로 파악함.
- 그러나 현재 20일 새벽 3시 출발하기로 한 오김숙이, 전승로는 항공편이 취소된 상태이며, 현재 전쟁 개전이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모두 요르단에 발이 묶일 것으로 예상됨.

2) 이후 활동 기초

- 이라크 현지에 팀원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요르단캠프를 운영하며 상황실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이라크 상황을 파악하고 이라크에 있는 세명의 팀원들의 안전을 강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이밖에 요르단 현지에서 할 수 있는 반전행동과 난민지원활동을 전개한다.

3) 체계 변동

- 이라크 2차 입국팀의 요르단 철수가 지연됨에 따라 귀국시기를 미뤄온 오김숙이 공동대표는 20일 귀국일자가 잡힌 상태에서 사임의사를 밝힘. 요르단에서 계속 활동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와 그동안 활동과정에서 지친 점에 대해 팀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사임함.
- 공동대표를 따로 선출하지는 않는 것으로 하고 요르단 활동을 위해 필요한 체계를 잡는 것으로 함. 이후 요르단에서의 활동에 강한 의욕을 가진 김창용 팀원이 '요르단 팀장'을 자원, 팀원들의 동의로 결정함.
- 그밖에 필요한 활동에 대한 역할분담을 함. 언론담당자 임영신, 난민지원담당자 주재일(민족문학작가회의 오수연씨도 돕기로 함), 이라크 현지 상황파악 정재원 등으로 정함.

4) 3.20 개전 예상에 따른 대책

- 전쟁중단 요구성명 발표, 거리에서의 행동계획 모색, 임영신 팀원 단식 시작 등을 전개하며 개전에 항의하고 전쟁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며, 아침 오전 8시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함.

■ 3월 20일 전쟁에 항의하는 이라크반전평화팀 성명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이라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침략이 시작된 이 순간에도 평화에 대한 염원을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은 당장 침략을 중단하고 철수하라. 미국의 경제적 야욕 이외에 어떤 명분도 없는 이번 무력 행사는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며, 최첨단 전자 무기에 무력하게 노출된 대상은 후세인이 아니라 이라크 민중들이다.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세계 민중에 대한 강대국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한 전세계적 연대를 다시 한번 간절히 촉구한다.

우리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이라크의 반전운동에 동참하면서 평화를 원하는 이라크 민중들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호전적이고 과격한 집단이라는 서구의 편견과는 달리 그들은 경건하고 친절한 문화인들이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개인들이다.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도 피할 방도가 없다.

우리는 왜 그들이 기름과 함께 피를 미국에 바쳐야하느냐고 묻고 싶다. 미국의 침략은 폭격과 지상전을 통한 직접적인 폭력이다. 그리고 12년 간의 경제 제재로 피폐해진 이라크 경제를 말살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도 이라크 민중들을 살해할 것이다. 미국의 침략은 이라크의 민주화를 심각하게 지체시키고 이라크 역사의 암울한 시기를 연장시킬 것이다. 이라크는 미국의 넘쳐나는 군사 무기를 쏟아부을 빈 땅이 아니라 고유의 전통과 자존심을 가진 이라크 민중들의 삶의 터전이다. 미국은 이라크의 민주화를 이라크 민중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의 혐오스러운 무기와 함께 자기들의 땅으로 신속히 돌아가야 한다.

1. 우리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침략에 반대한다. 미국은 전 세계 민중들의 요구에 따라 침공을 당장 중단하고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하라!

1. 우리는 파병 등 한국 정부의 이라크 전쟁 지원을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인류에 대한 범죄인 미국의 침략에 가담함으로써 역사에 지옥을 남겨서는 안된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희생자는 한반도가 될 수도 있음을 한국 정부는 직시하라.

1. 우리는 이라크의 비군사시설과 민간인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반대한다.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배상현, 한상진, 유은하를 비롯한 세계 평화 운동가들이 들어가 있는 다섯 곳은 명백한 민간시설이다. 배상현, 한상진, 유은하 씨는 이라크 민중들과 끝까지 함께 하기 위해 전쟁이 터진 이 순간에도 이라크에 남아있음을 밝힌다.

이라크 민중들은 안정되고 평온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라크 민중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03년 3월 20일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일동